



#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 마쳐

## 한귀희 회장 취임, 한 신임회장 “동창회 사무실 마련하겠다” 깜짝 발표



**【기사: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44대 회장에 한귀희(미대 68) 동문이 취임했다. 지난 2월 2일 LA 인근 노워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에서 한귀희 동문(미대 68)은 직전 회장인 강신용 회장(사대 73)으로부터 동문회기를 넘겨받음으로써 공식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2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2019년 한귀희 회장 외에 민일기 차기회장 등 신임 집행부도 추인을 받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한귀희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러 동문들이 마음을 모으면 우리 동창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창회 사무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해 참석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귀희 신임 회장이 발표한 동창회 사무실은 한 회장이 LA 한인타운 인근에 건축 중인 건물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1년 반 정도

후에는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가 되면 총동창회 사무실은 물론 각 단과대별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쾌적해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측 건물 참조>

한편 2019 남가주 총동창회 집행부는 이번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4월 13일 총동창회 골프대회 ▶5월 6~11일 미대 동창회 주관 작품 전시회 및 옥션 행사 ▶7월 할리우드볼 가족의 밤 행사 ▶노동절 연휴인 8월 31일~9월 2일 동문가족 캠핑 행사 ▶10월 원로 선배 초청 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9년 남가주총동창회 44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한귀희 회장(미대) ▶민일기 수석부회장(약대) ▶최용준 총무국장(수의대) ▶박제한 재무국장(문리대) ▶이종호 사업국장(인문대) ▶한석란 문화위원장(미대) ▶신호근 행사위원장(공대) >> P7 계속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건물 플랜  
1000 N. Hobart Blvd., LA, CA 90029

###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공연,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공연 등 자세한 안내는 3월 호 게재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 특집: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정대영 (문리 71)

### 패트리엇리즘... 미국에 사는 한인 고등학생에게 준 조언

정서적 조국과 법률적 조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몇 년 전에 미국 어느 주립 과학고등학교 한 인 재학생들로부터 한국사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주변에 마땅한 한국 역사를 말해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나는 한국사에 대해 별로 아는바가 없어 처음엔 사양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 수락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 가량인데 이 시간에 맞춰 그 긴 한국사 전체를 쑤서 넣어 알려주려고 하니 처음엔 난감했다.

며칠을 이리 저리 자료도 찾아 보고...

일목요연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역사 지도니까 그런 것도 부지런히 찾아 보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갔다. 어차피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대거나,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선 거의 까막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알려 줄 것은 “세종대왕이 누군지 아나요?” “삼국 시대란 것이 있었어요”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주려고 맘 먹었다. 아무리 그래도 긴 것을 압축한다는 것은 지난하게 어려운 일이다. 만화를 그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수를 뽑아 심도있게 압축시켜 전달해야 하니깐.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전달하려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쉽게 말해 정체성이었다. 맨날 신문에 나오는 한국인 2세들의 정체성. 즉 당신들의 조국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충성을 바쳐야 하나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나의 모티브를 자극한 것은 소위 '로버트 김 사건' 이었다. 당시엔 로버트 김이 수감되어 한국 신문들은 로버트 김을 애국자적 정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었다.

한국계인 그가 해 미국정보부에 근무하면서 비밀 정보를 주미한국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줬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려 7년 10개월이나 감옥에 있다 풀려난 사건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언론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또 노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신문의 헤드라인 정도만 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파이로 몰아 유죄로 판결을 하니...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곤 한편으론 로버트 김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미국의 현실과 미국민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뒤집어 쓴 죄목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순진한 후예들이 드넓고 기회의 땅인 이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실수로 일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선 안되겠다는

어 그릇된 상황 파악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유대인 조나단 폴라드는 미국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정서적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방 정보를 빼내어 이스라엘에 전하다가 탄로되어 30여년을 미국에 복역했다. 후에 이스라엘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이스라엘 국적까지 회복 시켜주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스파이 즉 반역자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미국에 와서 놀라고 좀 생경한 것은 미국인들의 패트리엇리즘(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선 보지 못한 문화이자 사회적 유대이었다. 한국에서는 요즘이나 당시나 애국을 내세웠다가는 보수 꼴통으로 찍히기 딱 알맞다.

그런데 그 패트리엇리즘이 추상 명사 만큼이나 현실에 적용될 때는 좀 모호하고 고약하다는 것을 목도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텍사스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꼬마 학생이 미

분위기가 살아 있는 조그만 마을 공립 도서관에 가면 독립전쟁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전쟁터에 나간 일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전시되고 있다. 드림을 두드리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자원 민병대 몇몇을 모아 영국군의 진격에 맞서기 위해 출전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럼으로 잘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한 인솔자가 전투에서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강조하고 이 고장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패트리엇리즘은 후에 교육을 통해 고취되었다. 교육 만큼 인간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킬 수단이 어디 있었는가. 미국 초등 학교에서는 아직도 “충성 서약문(The Pledge of Allegiance)”을 낭독하는 의식이 있다.

“미국기와 미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다”로 시작하는 이 의식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그래서 더 정서를 자극한다. 충성심을 감성의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하면 성조기를 어깨에 들쳐메고 거리에 나오거나 자동차에 걸기도 하고, 집 처마 밑에 걸기도 하는 것이 흔한 것은 다 이러한 교육으로 심어진 정서 아닌가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바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전쟁이니, 멕시코 장벽 건설이니, 이민자 엄격 제한이니 모두 그러한 미국인의 패트리엇리즘 정서에 은연중 기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타국의 눈에는 다분히 국가주의적으로(내셔널리즘) 비치고 있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이 지난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를 앞에 세워 놓고 “오늘날 100년 전의 오래된 악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주의는 애국주의의 정확히 반대말이다. 그건 배신과 같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를 겨냥한 수사이다.

그리고 “내셔널리즘이 패트리엇리즘을 해치고 있다”고 트럼프의 패트리엇리즘이 그 실은 국가주의라며 애국주의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한 것이다.

애국주의(patriotism)와 국가주의(nationalism: 상황에 따라 국민주의, 민족주의가 되기도 한다)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애국주의가 자칭 국가주의로 흐를 수도 있고, 국가주의가 애국주의에 기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운 것은 광신적 국가주의(인종주의) 즉 소비니즘이다. 전쟁과 대량 학살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시대의 수사(레토릭)에 빠지지 않고 광대한 꿈을 펼칠길 바라는 마음이다.



### 미국은 진정한 지상 낙원일까?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며...



이항렬 (법대 57)

미국에 60여 년 살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어려운 질문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하고 피상적인 대답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강대국이며 20세기 초부터 세계 패권 국가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려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보면 현재 미국의 GDP(국가 총생산력)는 \$18.6 trillion으로 1위이고 중국이 \$11.2trillion으로 2위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이나 아직도 미국 GDP의 반 정도이고 미국의 일 인당 평균수입(per capita) \$59,500은 중국의 평균치 \$16,000의 3배 이상이다. 또한 군사비 지출에서도 미국은 \$610 Billion (세계 전체 군사비 지출의 35%)으로 중국의 \$228 Billion보다 거의 세배다.

그러나 오래전 Yale 대학의 폴케네디가 그의 저서 '미국의 흥망성쇠에서 발표한 것처럼 많은 학자가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고 한다. 그가 지적한 예로 미국의 도덕성 하락, 막대한 부채, 범죄 증가, 무역적자, 인종 갈등, 약물 중독, 빈부 격차 등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수주의적 보수파 교수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미국 몰락설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학설에 의하면 미국은 재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미국은 아직도 전 세계 생산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이과 Gas의 최고 생산국이며 수출국이 되었다. 군사력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군사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물론 상반되는 두 파의 설이 모두 어떤 면에선 옳은 면이 있으나 냉정하게 관찰할 때, 미국의 영향력이 1960년대 초부터 점차 줄어들어 가는 기정사실이다. 특히 정치 영향력 면에서 많은 부정적인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도 최근 미국이 쇠퇴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기 위해 국수주의적인 경제, 외교 정책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정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빈이민 정책을 택하고 또한 무역전쟁을 중국과 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맹국 NATO member,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과도 대적하고 있어 점점 미국이 서방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많은 학자는 이런 트럼프의 비이성적(irational), 즉 충흥적(impulsive) 정책들이 미국을 몰락으로 진입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면 어떤 학설이 옳은 것인가? 이 거대한 미국의 힘과 세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 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과정과 지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특집: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을 위해 지도자를 뽑아 절대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그의 유명한 '개개인인 서로 적이다(Everybody is enemy against each other)'라는 주장으로 흡스가 오해받기 쉬우나 그의 학설의 초점은 "Everybody is equal in nature, therefore should be equal before the law"라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수립과 헌법 제정에 제일 큰 영향을 준 또 한 명의 학자는 존 로크이다. 그의 유명한 저서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출판)에서 정부의 목적과 권한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학설을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division of power)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776년 독립된 후, 1789년까지 연방 공화국은 아니었고 연합제도(confederate)로 13개 주가 거의 서로 독립된 국가 같은 연합 제도였다. 그러기 때문에 1787년 13개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려고 제헌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이 로크

술이었다. 그러므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535명의 상하원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일 이외에 헌법 제정도 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또한 예산도 결정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 감시한다. 낙선 대통령의 경우 입법부의 탄핵 소추를 받았으며, 현재도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공모, 결탁 혐의로 상하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탄핵소추도 발동할 수 있다. 사법부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판사들이 국회의 탄핵으로 판사직을 빼앗긴 경우도 있다.

헌법이 제정된 후, 230년이 지난 현재 행정부 권한이 사법부, 입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현재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마찰이 있을 것 같으며 이런 상황이 존로크와 몽테스키외의 '힘의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 주장대로 대통령의 독재 권한을 국회가 막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같이 자신들이 맡아서 권력을 넘놓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낙스이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권 남용, 외국과의 결탁, 공모 등 불법 혐의 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제정 하던가, 또는 행정부가 법을 잘못 적용할 때는 사법부가 이런 위법이나 위법적인 행동을 제재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삼권분립의 존엄성을 사법부가 지켜주어야 한다. 현재 대법원 판사는 한번 임명되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탄핵 소추를 받기 전에는 종신으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사 임명은 커다란 정치적 문제가 있으며 공화당 대통령은 보수적 판사를, 민주당 대통령은 진보적 판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예가 있다. 대법원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영향보다 클 수 있으며 또한 영구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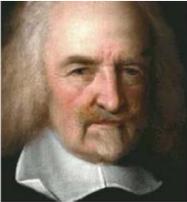
미국은 평등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이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은 부자나 빈자를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하며 법은 약자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므로 우리도 미국에 이민 온 소수지만 법을 이해함으로써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서술한 훌륭한 정치학자들 덕분에 자유와 평등이 1789년 미국 헌법에 보장되었지만, 아직도 그 달성은 요원하다. 1865년 헌법수정안 13조가 제정될 때까지 노예제도가 존재하였으며, 1868년 수정안 14조에서는 다시 한번 평등권 보호(Equal protection)와 누구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1920년이나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아직도 성차별, 인종 차별 문제가 미국에 마치 '암(Cancer)'과 같은 존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암적인 평등 개념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 미국이 진정한 지상 낙원이 될 날이 있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한다.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Alexis de Tocqueville



Thomas Hobbes



John Locke

립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고, 프랑스 의회와 외교에 참여하였던 그가 봉건 사회와 왕족 중심의 유럽은 결국 망할 것이며 20세기에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인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평등(Equality)과 자유(Liberty)라는 중요한 두 기초개념이 상반될 수 있으며,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조화, 융합시킬 수 있겠냐는 문제가 큰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Tocqueville 이외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다른 두 철학자는 영국의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이다. 토머스 홉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 출판)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협약(covenant)으로 성립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은 동등(equal)하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다투므로 서로의 안전

의 권력분립 사상이다. 그는 영국 시민인데도 영국 식민지 미국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각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로크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삼권분립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 두 논리가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헌법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미국 정부는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었으며, 최근에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우세한 것 같으나 헌법에서는 삼부가 서로 권력이 동등하다고 기술되었다. 처음에 헌법 제정자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헌법 1조에 입법 권한을 서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선거 대학(electoral college)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 분야는 헌법 2조에 서

올해 현황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경제성장의 추측을 이루고 있는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2019년 세계경제의 전망이 저성장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수출시장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예를 들면, IMF의 최근 세계경제전망은 미중무역 전쟁 및 중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인하여 일미전 전망 3.7%에서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경제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2018년 12월 월 -8.3% 감소했는데, 2019년 1월 월 -28.8%로 대폭 하락한 통

계를 구분하고 그 구조의 현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GDP의 구조는 (1) 소비, (2) 투자, (3) 정부지출, (4) 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오로지 경제성장을 증가의 낙관적인 구조 부분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소득지원 정책을 집중하게 되면,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을 증가에

바라는 효과를 결과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를 결과할 가능성이 농후..."

다섯째, 한국경제의 2%대 저성장 전망은 한국경제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잠재성장율의 부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잠재 총국내생산(Potential GDP)이란 경기변동의 추세와는 관계 없이 한국경제가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원을 최적조건으로 활용하여 생산해 내는 총국내생산으로서, 그 성장율이 저조하고 있다는 추세가 한국경제의 현실인 것이다. 그 원인으로 (1)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2) 노동생산성 감소, (3) 소득재분배 치중,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계가 한국경제의 금년 수출전망에 먹구름을 덮고 있다.

둘째, 한국경제규모의 두번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비(53.1% 비중)에도 비판적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소비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작년과 같은 수준(2.8%)으로 2.6%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소비 동향과 소비 심리에 비관적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최근 외식비 소비동향지수가 90, 의류비 소비동향지수가 96,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97.5 등으로 비관적인 면이 낙관적인 면을 앞서고 있는 전망이다.

셋째, 한국경제규모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투자의 전망이 소비의 전망보다 더 비관적이다. 건설 투자가 작년 -4.0% 감소한 추세에 뒤 따라 금년에도 -3.2% 줄어들 전망이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실시지수가 2016년 3월 68이후 가장 낮은 69로 될 것으로 비관적이다.

넷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오로지 경제성장을 증가의 낙관적인 구조부분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소득지원 정책에 집중하게 되면, 재정지출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율 증가에 바라는 효과를 결과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일자리 소득지원정책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를 결과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2%대 저성장 전망은 한국경제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잠재성장율의 부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잠재 총국내생산(Potential GDP)이란 경기변동의 추세와는 관계 없이 한국경제가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원을 최적조건으로 활용하여 생산해 내는 총국내생산으로서, 그 성장율이 저조하고 있다는 추세가 한국경제의 현실인 것이다. 그 원인으로 (1)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2) 노동생산성 감소, (3) 소득재분배 치중,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난 셈이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의 미국 정치사는 재정적자와 국채를 늘리는 데 민주당, 공화당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국채보다 심각한 것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빚'이라 불리는 정부 약속 채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복지 비용이 그것으로 소셜 시큐리티 7조 7,000억 달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38조 2,000억 달러 등 46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서 22조의 국채를 더하면 연방정부가 물어줘야 할 총액은 68조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들 비용은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돼 있다. 지금 비율로만 가더라도 2029년이 되면 연방정부는 이자로만 1조 달러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공화 민주 누구도 이에 대해 해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해답이란 것이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 표가 떨어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빚이 어느 한도를 넘어가면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기 마련이다. 국가 부채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리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려는 마부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모교 제27대 총장 오세정 박사(66)의 취임식이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 2월 1일, 4년 임기의 총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 총장은 이날 다음과 같은 취임사로 모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편집자 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임 총장님들과 총동창회장님, 법인 이사님, 평의회회 의장과 학원장을 비롯한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장 취임식에는 관례적으로 내외귀빈들을 모셔왔으나, 총장 공식 사태가 오래 지속된 우리 대학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조촐한 내부 행사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박찬우 총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전임 보직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제27대 총장직을 시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4년간 대학을 위해 헌신하라는 책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올해 개교 73주년을 맞습니다. 서울대는 그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끈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 것이 새 총장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학을 둘러싼 여건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서울대의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과 결과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외부 여건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자성(自省)이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대학은 무엇보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지성이 꽃을 피우고 밖으로는 그 지성의 힘이 뻗어 나가 주변을 이롭게 하는 터전이자 공동체가 바로 대학인 것입니다. 특히 사회가 혼돈과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대학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으로서 인류의 지적 유산에 광범위할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는지, 진솔하게 자문(自問)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성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 서울대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시의 적절하게 양성해 왔습니다. 선진 지식을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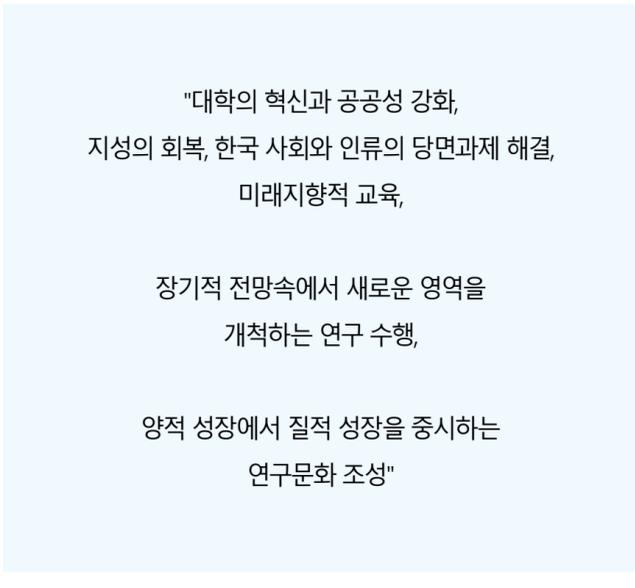
오세정 (물리학 71)

## 모교 제27대 총장 오세정 박사 (66) 취임사

생들에게 전수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축 성장 시대에 적절했던 이런 교육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앞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답을 오차 없이 받아쓰는 모방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꽃피는 독창성과 사유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길러내는 인재를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학문의 벽에 갇혀있기 보다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지도자는 타인과 공동체를 두루 살피는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길을 가고, 함께 갈 줄 아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육은 이러한 인재

를 키우기 위한 혁신의 도정(道程)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한 혁신을 통해, 좋은 대학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단지 경쟁에 뛰어난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회 곳곳으로부터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그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된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 간의 경쟁이라는 현재의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 입학한 학생들을 충실히 잘 가르치라는 국민의 염원에 좀 더 부응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이란, 뛰어난 학생을 잘 뽑는 대학이 아니라 잘 가르쳐 뛰어난

생들에게 전수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축 성장 시대에 적절했던 이런 교육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앞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답을 오차 없이 받아쓰는 모방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꽃피는 독창성과 사유의

이 일은 100일 안에 끝날 일도 아니고,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오세정은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개인 오세정은 미약하지만 제 27대 총장으로서 제 다짐은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다짐 뒤에는 여러분과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같이 첫 발을 내디디며, 서울대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8일  
총장 오세정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1975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학위(1982년)를 받았으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재직(1984~2016년)하였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장(2004~2008년), 전국자연과학대학협의회회장(2004~2008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2011~2014년), 한국 과학기술단체연합회 부회장(2011~2014년), 국회의원(2016~2018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리 문제 등 한국 사회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대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외에서 존경받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이제까지의 관행을 쫓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구성원 모두가 다져야 합니다. 사실 대학의 혁신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최근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와 마주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서울대는 한국의 대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낯설고 불편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낯설고 불편함이 서울대가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대 구성원에게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모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 속에서 낯설고 불편함은 발전을 위한 자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직면하고자 하는 이 도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최고의 교수, 학생, 직원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개교 당시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또한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행해나갈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서울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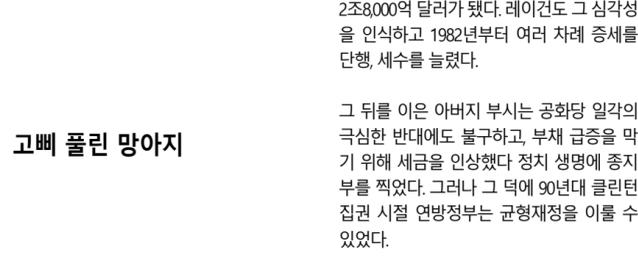
## 특집: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민경훈 (법대 78)

미국은 1775년부터 1781년까지 6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독립을 쟁취했다. 겨우 독립을 얻기는 했으나 초기 미국은 수많은 난제에 휩싸여 있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가 전쟁을 하느라 끝이다 쓴 돈을 갚는 일이었다. 당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지고 있던 부채 총액은 7,500만 달러로 당시 GDP의 30%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중앙정부는 조세권이 없었고 13개주가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컨티넨탈'이란 지폐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었고 귀금속으로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화폐 가치는 날로 떨어졌다. 느슨한 형태의 첫 번째 정부가 없어도 연방헌법에 기초한 강력한 중앙정부가 들어선 것도 부채 문제 해결이 첫째 이유였다.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채무를 인수하고 조세권을



발동해 이를 갚아나가면서 대폭 향상됐다.

연방정부 채무는 그 후 50여년 동안 안정적 인 상태를 보이다가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때는 모든 빚을 상환, 잠시 국채가 없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그 후 국채는 남북전쟁으로 급증했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원상을 회복했고 제1차와 제2차 대전으로 다시 급증했으나 역시 전쟁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갔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도한 부채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전쟁이 아닌데도 국채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레이거노믹스에 따라 1981년 대대적 감세가 시작되면서 연방정부의 빚은 급속히 늘어났다. 레이건 집권 초기 1조 달러이던 국채는 8년 사이 186%가 늘어

2조8,000억 달러가 됐다. 레이건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1982년부터 여러 차례 증세를 단행, 세수를 늘렸다.

그 뒤를 이은 아버지 부시는 공화당 일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다 정치 생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그 덕에 90년대 클린턴 집권 시절 연방정부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9.11 사태에다 이라크 전쟁 등 국방예산이 급증하면서 다시 국채는 불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 5조 6,000억 달러 수준이던 국채는 2008년 10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국채 비율도 55%에서 68%로 높아졌다.

그 후 오바마 집권 8년간은 금융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GDP에 대한 국채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 전쟁상황이 아닌데 국채 비율이 100%에 달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오바마가 물러났을 때 19조9,000억 달러이던 국채가 트럼프 집권 2년 만에 22조 달러를 넘어섰다. 불황도 전년도 아닌 시기에 이처럼 빚이 불어난 것은 트럼프 감세 때문이다. 당시 공화당은 감세를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시켜 세수를 늘려줄 것이라 주장했으

출마의 변

저는 1965년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5년간 Civil Engineer로 일하다가 1971년 3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UC Berkeley에서 1972년 12월에 석사학위를 받고 1973년 1월에 Pasadena에 있는 Water Infrastructure 설계 용역 회사인 Brown & Caldwell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남가주에 주소를 두게 되었습니다. Brown & Caldwell에서 일하다가 Don Lee라는 Irish American 동료와 1979년 3월에 LEE & RO, Inc.라는 Water Infrastructure 설계 용역 회사(www.lee-ro.com)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1997년에 Partner Don Lee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CEO로 일하다가 2018년 10월 31일 은퇴했습니다.



노명호 (공대 61)

들을 심도 있게 다들 생각합니다.

동창회 활성화 (Sustainability 개선)

동문 참여율 감소는 모든 지역 동창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 (eg. 75학번 아래) 참여율은 매우 낮는데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10월 회보에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창회가 "Sustainable"하고 활성화되려면 "젊은 연령대"에 맞는 Program들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주의 "원로 선배 오찬" 행사는 연로하신 선배 동문들에게 Appeal 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예를 들어 75학번 아래 젊은 동문들에게 Focus 되고 Appeal 하는 동문회 행사는 계획조차 별로 없었던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창회에 관심이 없는 선배 동문들과 참여를 주저하는 젊은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행사나 Program도 개발하



미주동창회 차차기 (2021, 7~2023, 6) 회장에 출마합니다.

고 Sponsor도 할 계획입니다.

지역 동창회와 소통 및 연결

지역동창회, 특히 동문 수가 작은 지역 동창회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미에 있는 많은 지역과 연결하며 소통하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많은 지역 동창회를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현 집필/편집진의 노력으로 정말로 좋은 동창회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동창회 특별히 작은 지역의 원고와 소식들을 동창회보에 더 많이 할당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창회 자금 모금 활성화 (Fund Raising)

지금까지 전임회장님들과 현 회장단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동창회 기금이 조성되어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

금 규모는 우리의 목표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Giving Culture나 Philanthropy나 Fund Raising Activity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Fund Raising 홍보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문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해 터전을 마련해가고 있으니 American으로서의 Giving Culture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는 동창 회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교 서울대와 서울 총동창회와 소통 및 교류

지금까지 전임회장단들이 열심히 모교와 모교 동창회와 연계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교와 모교동창회의 연결고리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미주동창회장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는 미주재단의 Fund Raising Activity에 열심히 참여해 모교를 돕고 모교는 미주동창회가 자리 잡는 일에 Meaningful 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저는 모교 및 모교동창회와 열심히 소통하며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모교가 도와준다면 미주동창회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소개한 저의 출마의 변이 동문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Sustainable 한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저의 계획에 선 후배 동문님들의 응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한귀희(미대 68) 신임 회장이 강신용(사대 73) 직전 회장으로부터 동문회기를 넘겨받다.

남가주 총동창회 2019년 총회 이모저모

[글: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 이날 총회 때는 남가주 날씨답지 않게 종일 폭우가 쏟아져 참석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특히 오후 5시 시작되는 행사 준비를 위해 점심 때부터 짐을 나르고 무대 세팅을 해야 했던 신임임원들은 두 배로 고생을 했다는 것이 중론. 하지만 정작 임원들은 폭우 때문에 팀워크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 주변을 흐뭇하게 하기도.



붉은색 타이와 스커프로 통일한 집행부 임원들

▲ 이날 행사에 봉사자로 나선 신임 집행부는 남자는 모두 검정계열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여자는 정장에 화사한 스카프로 복장을 통일하고 참석 동문들을 맞아 크게 주목을 끌었는데, 70~80대 원로 선배들이 이를 보고 "올해 임원진은 모두 인물 보고 뽐았느냐?"며 "역시 젊음이 좋다"며 부러움 섞인 격려를 보내오자 집행부들도 덩달아 으쓱.

▲ 이날 행사 때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은 작은 어항 속에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와 노란색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 이 장식을 위해 집행부가 죽들까지 동원돼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오고, 꽃을 다듬고 테이블 세팅을 하는 등 모두가 분주했는데, 행사 뒤 물고기는 거의 죽지 않고 대부분 생존해 모처의 연못으로 옮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후문.

▲ 행사는 1, 2부 나누어 진행했는데 2부 여흥 때는 한국 비행기표 3장 등 푸짐한 상품들이 경품으로 나와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동문 합창단의 노래와 음대 연주자들의 기념 연주에 이어 이원영 동문(사대 81)과 켈리 박



사진 1

윤상래 회장 LA 방문 인터뷰

[글: 홍선례, 문화국장]

남가주 총동창회 신년총회에 방문하시어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남가주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동문들이 모두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저를 전야제 만찬에 초대, 남가주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시어 환영해 주셨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동창회에 관해 좋은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역시 남가주 동문들은 매우 친척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1)

총회 직전, 회의장 근처 Sonoma Grill Restaurant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2019년 남가주 임원들과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 카페에서 김병연(공대 68), 성주경(상대 68) 부부, 위중민(공대 64) 부부, 백옥자(음대 71), 홍선례(음대 70) 등 동문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왼쪽부터 신용남 자기회장, 이병준 동문 부부, Mrs. 신용남 동문, 김경숙 동문, 윤상래 회장 부부, 이상강 동문, 백옥자 동문

행사장에서 오라클호텔에서 오신 이상강(의대 70) 동문과 김경숙(가정대 70) 동문 부부를 만나 매우 반가웠습니다. 큰 규모로 준비된 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귀희(미대 68) 신임 총동창회장 인사말 중에 "동창회관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입니다. 푸짐한 경품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등, 주최하시는 분들의 배려가 있었고 행사가 끝났는데도 모두들 아쉬운지 떠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남가주 동문들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LA 어느 곳을 돌아 보셨나요?

제 처가 미주동창회 운영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서 항상 원하던 1번 국도를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월 30

일 도착, 회사 일로 와있던 큰 아들(Frank, 통계학박사, 현 IBM Research Manager)과 함께 차를 몰고 유명한 해변가(Santa Cruz, Pismo, Cambria 등)를 두루 구경했어요. Cambria라는 곳에 둘러보니, 인구 6,400여명 규모의 작은 도시 더군오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감탄했어요. 이사하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 곳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총회 전날 LA에 도착했습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신년총회를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총회 진행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최영준(수의대 81) 총무의 탁월한 사회와 이원영(문리대 81) 동문의 게임리드도 좋았습니다. 장진영(음대 88) 동문이 지휘하는 남가주 동문 합창단 연주, 그리고 박예린(바이올린, 음대 11), 김원선(첼로, 음대 04), 이승현(피아노, 음대 04) 동문 등의 연주는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Violin Solo,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Piano Trio,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밸런스를 가진 동문들로 구성된 남가주총동창회는 그야말로 복받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욱 발전하여 미주동창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A에 머무시는 동안 다른 일정이 있으셨나요?

총회 다음 날은 이병준(상대 55) 회장님을 용수산 한식당에서 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수 운전을 1시간 반이나 하고 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밤 운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헤어질지 1시간 반 후에 전화를 드리

Advertisement for 'BRAIN NETWORK SEMINAR' featuring speakers Kang Pyo So, Jong Sung Koh, and Noah C. Choi. The seminar is held at MIT Stata Center on April 6th from 3-5 PM.



설날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동문들 기념 촬영

###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2019 설날 잔치

80여 명의 동문 참가, 테이블 대항 '떡 썰기', '한복 패션쇼' 등 즐거운 시간 가져

【기사: 한정민(농대 87) 총무】 워싱턴 지역 동창회(회장 정평희)는 지난 2월 2일(토) 낮 12시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2019년 설날 잔치를 가졌다. 전날 내린 눈과 동장군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8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예상 인원 초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준비한 웃놀이와 '세배하기'는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연말 파티 후, 6주 만에 만난 선후배들의 즐거운 담소는 동창회가 더 이



테이블 대항 '떡 썰기' 대회



송윤정 (인문 88), 한정민 (농대 87) 동문

상 낮설지 않은 따뜻한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대항 '떡구떡 썰기'에서는 8명의 팀대표가 한석봉 어머니에 견줄만한 '떡썰기 솜



### 신용남 차기회장, LA 미래 에셋 방문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신용남 차기 회장은 이번 LA 방문 중 한국에서 가장 큰 투자자산인 미래에셋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메니저 최경석(사대 80) 동문을 만나 동창회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P7 로부터 계속

고 잘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병준 회장은 역시 대사업가(SeAH 철강회사)답게 세계, 국제정세에 밝으시고, 퇴역 공군 장교출신으로서 인지 한국의 국방, 장래, 공군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계셨어요. "한국의 사관 학교 생도들의 애국심은 철두철미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하시어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중수 동문 부부와 조찬

2월 4일 월요일 날은 수의대 선배이신 박중수(수의대 58) 박사님을 뵈고 사모님과 함께 조찬을 했습니다. 박중수 박사님은 서울에서 14살에 625를 맞아 공산군에게 납치 당하여 전쟁 중에 시체나 부상병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부상병을 서울에서 황해도 황주까지 나르느라 거수일 생으로 탈출 하셔서 서울까지 두달 만에 도착했고, 곧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단돈 500불을 들고 미국에 오시어는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U. Virginia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동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미시간에 오셔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 지금은 미시건, DC, LA에서 대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27 Million Dollar 남가주 새누리 교회를 증축하는데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시어 아무런 잡음없이 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씨를 발휘했다. 즉석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에서는 2살 꼬마부터 80대 대선배까지 14명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곱음과 춤을 선보여 함께 모인 동문들의 마음에 환한 웃음을 선물했다. 멀리 샬로츠빌에서 곁게 한복을 차려입고 쪽두리까지 쓰고 2시간을 운전해서 온 조재중 동문 (67)부부의 열정이 돋보였다. 또한 몽골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에 유학한 유일한 외국인인 오랑거 (법대 06) 동문은 '몽골에는 성이 없어서 아버지 이름을 성으로 사용한다며 '사람들은 가끔' 오가 성인줄 안다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박수를 받았다.



한정민 동문, 이관후 (공대 87), 임갑열 (인문 87) 동문

2019년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황금돼지해에 워싱턴 지역 동창회가 양적/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긍정적인 기대가 마음을 채운다. 다음 행사로는 3/23 (토) 5시 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있고, 4/20 (토)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 SNU 가족들이 다함께 Longwood Garden(PA)를 방문할 예정이니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남가주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 모임

【출처: 2/7 남가주 총동창회 임원회의 기록】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한귀희)의 임원회 모임이 2월 7일 LA 신북경 중식당에서 열렸다. 참석 임원들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 결산 보고와 앞두고 있는 각 행사들(일정 참조)의 상세한 부분을 논의했다.

다음 정기 임원회 모임은 3월 7일과 4월 4일에 하기로 했다. 다음은 앞두고 있는 행사 일정이다.



인연테 커피숍에서

▶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Brookside Golf & Country Club 1133 Rosemont Ave., Pasadena, CA 91103 / Tel: 626-585-3594 저녁식사: 골프장내 Mediterranean Ballroom

▶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  
7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Hollywood Bowl - Highland and Camrose Picnic Area(#14) - 2301 N. Highland Ave., Hollywood, CA 90068

남가주 동창회를 방문하여 여러 동문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그리웠던 분들을 다 만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LA를 떠났습니다.



### 남가주 공대동창회 신년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회장 조정시 (60), 차기회장 위중민 (64), 총무 배재현 (75), 재무 김경무 (69) 동문으로 구성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2월 13일 남가주 공대동창회(회장: 한효동 58 건축공학과)에서는 Rowland Heights 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신년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비가 부슬 부슬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우애를 다졌다. 이 행사는 2018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조찬모임도 겸한 행사이다. 공대 조찬모임은 이번이 네 번째이고 Los Angeles, Orange County 와 LA 동부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

학과 69)로 구성되었다. 또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 50년사(기념 책)" 발간은 금년 여름, 8월 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동문은 이탁성(금속공학과 56) 원로동문에서 배재현(전기공학과 75) 동문에 이르렀다. 또한 노영호(토목공학과 61), 김병연(응용수학과 68), 서치원(공업교육과 69) 등 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이해영(전기공학과 56), 고재천(자원공학과 57), 한홍택(기계공학과 60), 권국원(기계공학과 69) 등 전 남가주 공대동창회장과 남가주 총동창회 선임이사 김병완(자원공학과 58), 송영두(원자력공학과 59), 그리고 홍선례(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등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신임 회장 조정시 동문

조정시(금속공학과 60)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더 많은 동문들의 공대동창회와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정시 회장의 2018년도 회계보고가 있었고, 특히 동창회를 위하여 2만불의 거금을 기부해 주신 김영기(화학공학과 52, 1977년 공대동창회장 역임) 회장 사모님이 신 김남수 여사께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위중민, 김병연, 한효동, 조정시, 배재현 동문 등 임원들과...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층의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조찬모임은 분기별로 동창회 비용으로 장소를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다.

다음 달 5월 조찬회는 LA 에서 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총동창회 행사에 보다 더 적극 참여하며, 산악회, 골프, 영화감상, 서예, 바둑, 낚시, 철벽지(자전거), 사진, 합창 등 총동창회 동우회에 참가하고, 공대동창회에서 당구, 장기, 탁구, 와이너리, 댄스 등의 모임을 만들어서 친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한효동 전임 동창회장에게 감사패 수여

조정시 신임회장은 수고한 2018년도 임원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2019년 행사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임원진은 차기회장 위중민(자원공학과 64), 총무 배재현(전기공학과 75), 재무 김경무(응용수

학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차기회장 위중민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전 세리토스 시장 조재길 (사대 61) 동문 가주 상원 재도전



조재길 (사대 61)

【출처: 미주중앙일보, 라디오 코리아】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재길(사대 61) 동문이 내년 열릴 가주 상원 29지구 선거에 재도전한다.

조 동문은 지난 1월 말, 가주 정부에 2020 상원 29지구 선거 캠페인 후원금 계좌 등록을 마쳤다. 조 동문은 지난해 6월 5일 치러진 자시 뉴먼(민주) 가주상원 29지구 주 민소환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해 리콜 선거를 앞두고 조 동문은 "공화당이 주도한 리콜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뉴먼

이 리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상원의석 하나를 공화당에 그냥 헌납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선거에는 조 동문을 포함해 브루스 위태이커, 링링 쉐 등 공화 민주당에서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조 동문은 지난 1월 말, 가주 정부에 2020 상원 29지구 선거 캠페인 후원금 계좌 등록을 마쳤다. 조 동문은 지난해 6월 5일 치러진 자시 뉴먼(민주) 가주상원 29지구 주 민소환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해 리콜 선거를 앞두고 조 동문은 "공화당이 주도한 리콜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뉴먼

한편, 캘리포니아 주 29지구는 부에나파카 폴라토 등 한인 밀집지역을 비롯해 라팔마, 사이프레스, 스탠튼, 요바린다, 브레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 워싱턴 주 동창회, 2월 SNU 포럼 개최

"2019년 국내외 (한국 및 세계) 경제 동향, 환율 동향과 전망"

【기사: 김재훈 SNU 포럼 회장】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SNU Forum 은 10주년 기념 세미나로 "한국인의 가치관(Korean Values and Personalities)"이라는 인문학 주제로 힘찬 출발을 했다. 이번 2월 세미나는 9일 Kirkland Library에서 외부 초청 강사의 경제학 강의로서 "2019년 국내외 (한국 및 세계) 경제 동향, 환율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초청 강사는 송은주 동문의 부군이며, 2014년 (4월), 2017년 (2월)에도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던, 우리 동문들께는 아주 친숙한 분이다.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3월 - Jenna Lee 전무이사 (Microsoft Head of IoT Solution - APAC/Japan): 4차 산업혁명과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y 4.0 with Digital Transformation)
- ▶ 4월 - 황현정 박사 (UW 경영학과 교수): Social Network Services - Innovative use of social media by business
- ▶ 5월 - 황지욱 박사 (광주 과학기술원 교수, UW 교환교수): TBD - 인간과 같은 로봇 (Robot)이 가능한가?
- ▶ 6월 - 조수형 박사: 경영과학의 추세와 응용 - Business analytics and its applications
- ▶ 7월 - TBD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TBD: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및 Opera House로의 여행 (Journey to The World Famous Orchestra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 ▶ 10월 - TBD: 박길호 팡칼럼니스트 (SBS 이숙영의 러브 FM 팡칼럼니스트): 추억의 팡송 해설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중강 파티 장소) - TBD: 장소 제공하실 분 접수 (선착순)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Yearly General Meeting)

강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세계 경제의 개편에서부터 시작했다. 특히 2017년에 이르러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책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Fed(연방준비은행)에 의한 2-3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영국이 Hard Brexit(유럽연합탈퇴)를 공언하고 있어서, EU는 난민문제와 재정적자, 금융기관 부실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2019년 세계 경제의 방향성 및 한국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가계 부채 문제 등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경제 기조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환율의 성격상 2019년 원/달러 환율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원(W)/달러(\$) 환율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 978-835-0100



### 남가주 농대 동창회 신년 총회 개최

이학진 (71) 회장 연임 결정, 총무 김인중 (74) 동문, 재무 엄동해 (74) 동문 선출

【기사: 남가주 농대 동창회】  
지난 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LA Olympic Blvd에 있는 농식당 "관리장성"에서 서울 농대 남가주 동문들의 신년 총회가 있었다. 17명의 동문(지중근, 이방기, 강세진, 신규식, 박인수, 정병혁, 이학진, 유이중, 엄동해, 김인중 동문과 그 가족들)이 함께한 신년 총회는 이학진 회장의 경과보고와 재무보고를 시작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40여명 이상의 동문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치러진 골프대회와 आयु회 등 지난날들을 추억하면서 새동문들이 줄어든 원인을 짚어 보며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였다.

새 임원진 선출이 있었으며 장시간의 토의로 이학진 회장(71학번)의 연임이 결정되었고, 총무에 김인중(74학번) 재무에 엄동해(74학번) 동문이 선출되었다. 유이중(74학번), 강세진(61학번), 지중근(56학번), 정병혁(70학번) 동문 등이 자발적인 농대 이사로 협력을 다짐했고, 남가주 총동창회의 선임이사 3명(강세진, 유이중, 정병혁)도 선임되었다.

며칠동안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수온수가 75도를 가리키는 화창한 주말, 적은 인원이지만 모두 함께 일하기를 약속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 남가주 등산반, Valley of Fire State Park 다녀와

【기사 제공: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 등산반(반장: 김동근, 공대 60)은 Valley of Fire State Park에서 등산모임을 가졌다.

유재각(공대 72) 동문이 이번 등산의 기행 소감을 다음과 같이 보내 왔다.

"2019년 1월, Valley of Fire에서 우리는 오색 웨이브의 향연과 세월의 흔적을 보았다. 첫째날, Arch 너머의 새파란 하늘에 마음을 담고 Beehive rock에서 태고의 연륜에 고개를 숙이고 Elephant의 신기함에 마음이 들떴다. 둘째날, 불의 계곡 대장정은 가는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맛따르린 좁은 바위 틈을 산고의 고통과 기쁨과 희열로 통과한 대원도 있으나 대부분 비대한 우리는 어른 키 두배의 절벽을 내려 와야하는 난관 격정은 웃음으로 두려움은 폭소로 모두의 협조와 용기 줄

거움의 잔치는 대장정의 꽃이었다. 세째날, White dome은 우리의 도전 레전드 김동근 대장님은 어깨에 피멍이 들어도 손바닥이 부르터도 기술과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 올리고 대원들은 발을 받치고 강한 몸무게를 들어 올려 주고 불가능이란 없었다. 대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인사는 불의 계곡에 메아리 치고 우리는 모두 레전드의 수재자가 되어 불 타는 저녁 노을을 보며 내일을 향해 달렸다."

정동구(공대 60) 동문은 다음의 글을 남겼다.

"비바람 찬서리에 힘없이 무너지고 매정한 강물은 수천길 바다 밑으로 생이별 시켜 버린 작은 모래알, 천만년 층층이 쌓인 한은 보석 보다 더 굳은 수성암으로 태어났네. 벽해상천 저연조화 은덕으로 물위로 다시 올라

### 박윤정, 원미랑, 현혜명 동문 3인 초대전

LA 한국문화원, LA Art Project 2 "Core Evolution"



【기사 출처: LA 한국문화원 보도자료】  
LA 한국문화원은 2019년 2월 전시로, LA Art Project 2 "Core Evolution (변화의 중심)" 3인 전시회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번 3인전의 주인공들은 1960년대에 모두 서울 미대를 졸업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로서 박윤정(미대) 교수는 도자기와 유리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샌디에고 시티 칼리지에서 수십년간 교편을 잡아 왔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현혜명(미대 61) 작가는 LA에 거주하며 각종 아트 페어와 주요 화랑 등에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원미랑(미대) 작가는 SF 베이 지역에 거주하며, 23년 넘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화실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최측은 "여류 화가들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지만 1960년대만해도 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미술 활동은 더욱더 어려웠던 시기였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미술 공부를 마친 이들은 또다시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유학을 나가면서 문화적 충격과 싸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들과 전쟁하며 혼돈을 거치면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이 뿌리를 내린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에서 지금도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적 충격, 이념과의 싸움 등 혼돈을 겪은 작가들이 동서양의 문화적 융합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말뚝 박아가며 차분히 걸어가는 모습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보 독자 자녀 분 중에 역사 공부에 흥미있는 대학생이나 졸업하신 분으로 한국인 영어를 미국인 영어로 Editing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200 page 역사 수필 책 내용입니다.

최용완 Bryan Choi:  
email: bryanchoi@cox.net / cell: 949-721-1356

### 동창회보 300호 발행 기념 기획

#### 동창회보 창간호를 찾습니다.

회보 편집부는 동창회보 300호(2019년 4월호) 발행을 기념하여 동창회보 창간호 참여한 동문과 회보 창간호를 가지고 계신 동문을 찾습니다. 참여 동문이나 이 분을 알고 계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3월 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news@snuuaa.org

한생하니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 그데로 있으나 그리운 임 보이지 않고 불꽃 보다 더 붉은 이마를 전할길 없으니...  
▲참가 동문 김동근 부부, 조정시(공대 61) 부부, 남중우(

공대) 부부, 박진국(의대 64) 부부, 김인권(의대 72) 부부, 제영혜(생과대 71), 백정현(음대 66), 유혜연(음대 79), 이상실(간호대 88), 김선홍(공대 64) 부부, 김인중(대 74), 신영찬(의대 62) 동문과 이상무님



장윤일 (공대 60)

### 미래를 위한 전력 생산

전기는 경제의 엔진이며 지난 50년 동안 GDP 성장에 비례하여 1인당 전기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볼 때 총 전력 수요는 2050년에는 현재 수준의 약 25배, 2100년에는 약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발전 방법을 고르고 선택할 여유가 없다. 인류는 석탄, 천연 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든 에너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든 전력 생산 방법 중에 원자력만이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발생이 없고, 원자력 및 토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며, 급증하는 전력 소비 수요를 대처할 수 있다.

### 전 세계 원자력 현황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일부 원전을 폐쇄하였고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채택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원자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주장과는 달리 1995년 이래 한국, 인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에 약 80 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 향후 10 년 동안 중국과 다른 19 개국은 100 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 신흥 원자력 에너지 30 개국도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는 미래의 전력 수요 성장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독일 사례 연구

독일은 지난 5년간 1,810 억 달러(약 200 조 원)를 투자하여 약 34 GWe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건설했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은 약 20-25 %의 시간 동안에만 전력을 생산하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시간을 위해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대체 전력을 공급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태양광과 풍력은 변동이 크지만 초과 전력 저장에는 한계가 있어, 초과 전력은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 한국과 같이 폐쇄된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 별로 초과 또는 부족한 전력의 관리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이점은 대부분 무효화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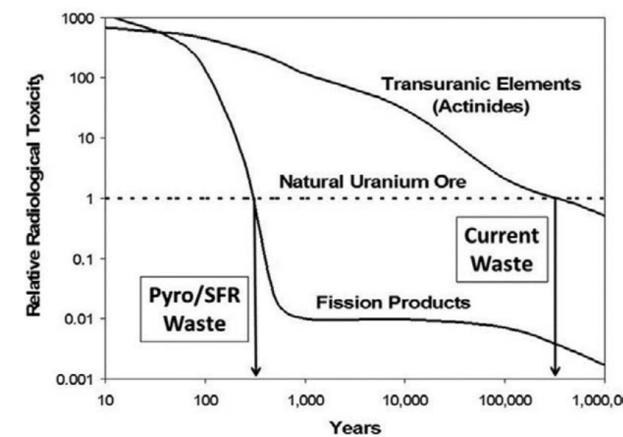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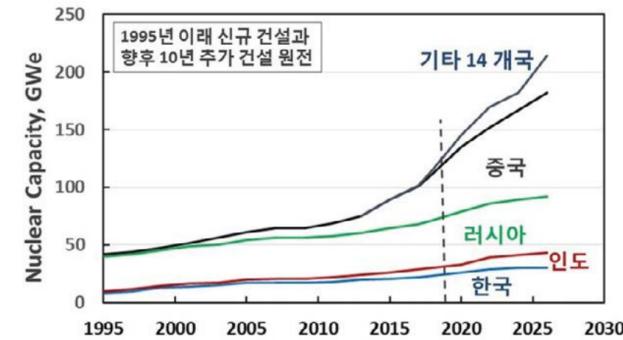
### 왜 원자력이 필수적인가?

기존의 에너지 자원은 자연에서 얻어지지만 원자력은 두뇌로 창조된 응축된 에너지 원이다. 1 톤의 핵분열은 350 만 톤의 석탄 연소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원자력

### 세계 원자력의

### 현황과 전망

은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량은 원자력에 비해 석탄은 30 배, 천연 가스는 20 배 정도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철강 요구량은 원자력에 비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는 10 배 이상, 태양열 발전소는 50 배 이상이다. 토지 이용 면적은 원자력에 비해 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를 이용해 방사성 폐기물 유효수명 경감

양광 발전이 50 배, 풍력은 400 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력은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공급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앞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원자력은 한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전력 생산 방법

한국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LNG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경제적인 자원이었다. 2012-16년간 평균 전력시장 정산단가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 LNG는 3.5 배, 풍

력은 3.4 배, 태양광은 4.6 배 더 비싸다. 원자력 단가에는 사용후연료 처분 비용과 제염 해체 비용이 포함되며, 이 비용은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되고 있다.

### 원자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원자력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두가지의 크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 첫째는 후쿠시마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한 명도 희생된 사람이 없다. 이번 명 정도의 사망자와 실종자는 일본 역사 상 가장 컸던 지진과 쓰나미 때문이었고 원자로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로 리히터 규모(Richter Scale)에 맹점이 있다. 후쿠시마의 9.0 지진과 경주의 5.8 지진 폭의 차이가 두 배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10 의 9.0 승 과 10 의 5.6 승 즉 109.0/105.6 =

안에도, 일용품에도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등 우리 몸과 주변에 어디에나 있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람사르와 같이 자연 방사능 양이 한국보다 100배가 높은 지역이 있고 세계 곳곳에 10배 이상 높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보다 높아서 Radiation Hormesis (호르메시스) 즉 어느 정도의 낮은 방사선은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설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점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자연 방사능의 10만분의 1정도 이고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은 대형사고 시에도 주변에서의 피폭량은 아무런 건강에 피해가 없는 정도였다. 단 체르노빌의 증기 폭발과 흑연 감속재 화재로 완전 노출된 노심을 막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고 헬리콥터로 저공비행을 한 200여 명 중 42명이 사망한 것이 유일한 사망자들이다.

### 사용후 연료 처분의 해결책

사용후연료는 타 발전소 폐기물에 비해 부피가 매우 적은 관계로 직접 처분이 가능하여 스웨덴은 19 억 년 전에 생성된 깊은 암반에 500 m 깊이로 지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미국 아르고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반감기가 긴 원소를 추출하여 고속로에서 연소시키면 방사성 폐기물의 유효 수명은 약 300,000 년에서 약 300 년으로 줄어들어 처분장 건설 및 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이 방법은 또한 우리는 자원 활용률을 고속로에서 170 배까지 확장하여 미래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 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상업용 원전은 우라늄 자원의 0.6 %만을 활용하고 있다.

### 원전 수출 기회

1986년부터 한빛 3호기 공동 설계 및 기술 이전을 위해 200명 이상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들이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에 파견된 바 있다. 그 이후 설계 기술 자립을 통해 APR1400 표준 설계와 4기의 UAE 원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MIT 보고서에 의하면 APR1400의 건설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러시아는 11개국에서 건설비의 20-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중국 국영 은행은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에서 건설비의 80%까지 자금을 조달해 주고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고속로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확보하는 국가가 원전 기술 선도국이 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PGSFR (제4세대 원전 고속로) 프로젝트는 2012년 아르고 국립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로 시작되었다.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설계 인가를 받고,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고속로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가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고속로 프로젝트는 재가동되어야 한다. 고속로는 3-40년 후 한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 아르고 국립 연구소 석학 연구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 공학과 초빙 교수



윤기향 (법대 65)

##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해와 이해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 때는 백합화와 같이 찬연했던 한국 경제가 지금은 사들음 백합화의 꽃잎과 같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생기 없는 모습은, 그러나, 어제 오늘에 생기 문제는 아니다. 더욱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두 덩터기를 뒤집어쓸 성질의 것도 아니다. 증상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90년대 중반부터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처방전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골간을 이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옹호자들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선순환을 그린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실로 빠질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다분히 케인스적인 정책 처방이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한창일 때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케인스의 정책 처방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케인스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론을 제안한 것이다. 케인스 이전까지는 시장이 스스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고전학파이론이 거의 160년 동안 구미 경제학계를 지배했다. 케인스는 그 당시 정통파 경제이론인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반기를 든 것이다. 대공황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최저임금제가 대공황 때 도입되었고 뉴딜정책으로 미국 곳곳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판이 되었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10년 넘게 지속된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미국의 웬만한 시골에 가면 공원과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많은 수가 대공황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약발이 먹

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때 그러한 정책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까지 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미국의 실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3.3% ~ 3.5%)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 2000년 4월 3.8%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10월에는 10%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연준)은 전력을 다해 경제 살리기 작전을 폈다. 마지막 임기의 부시행정부와 의회는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공

##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자본주의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득 불균형이나 노동력의 감소와 같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투자 증대나 기술 혁신과 같이 효율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정권을 이어받은 오바마정부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7,85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연준도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연준 100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양적완화라는 새로운 금융정책 도구를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대공황 때와 글로벌 경제위기 때 임금주도 성장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오바마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미국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양적완화 조치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점점 회복되어 갔고 미국의 대침체(Great Recession)도 2010년 10월에 공식 종료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쌍끌이 작전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 이후 미국경제는 현재까지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정책은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언제나 위력을 발휘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한 정책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져 실업이 늘고 생산이 줄어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성장률의 둔화가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하다. 한국의 실제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진 것은 잠재성장률이 그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은 주로 노동의 증가, 자본의 증가 (=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에 의해서 결정

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노동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으며 자본의 축적으로 자본수익률도 많이 떨어졌다. 기술혁신으로 노동과 자본 증가율의 둔화를 매꾸어야 하는데 아직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혁신 (총요소생산성 증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진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약 3.5%선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과제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3%대는 한국경제가 이제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준의 성장률이 현재 한국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정상 수준이다. 옛날의 영광에 젖어 5%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 다거나 성장률에 너무 집착할 경우는 과욕급이 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지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은 개인의 재산 축적에서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전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많은 연구들은 소득불균형이 심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소득불균형은 시장이 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21세기 자본론>>을 써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피케티(Thomas Piketty)는 정부가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경우 소득 불균형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취약계층의 실질임금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 90% 이상의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보통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는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고용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급진적이고 대폭적이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이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실질임금의 상승을 유발하는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 치매: 독성 BMAA와 L-Serine의 전쟁?



정계훈 (문리 55)

치매는 하나의 뇌질환으로 기억력 상실, 인식 장애, 언어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힘들게 한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노환이 치매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노화 과정에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Heart Diseases)과 독성 아미노산(BMAA)의 축적으로 치매 증상이 악화된다. 치매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과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가 대표적이다.

**Alzheimer's Disease(AD)**는 독성 아미로이드 플라크(Beta Amyloid Plaques)와 타우푸로틴 농축 매듭(Tau Protein Tangles)에서 발생한다(Thomson, 2018). 아미로이드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데 대부분이 분해되어 사라진다. 나머지는 뇌 안에 있는 면역체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악성 미생물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할 때 분해되지 않는 Beta Amyloid Plaques(BAP)로 변한다. BAP는 뇌세포들 사이에 형성되어 뇌세포들 간에 소통을 방해 함으로 정상적인 뇌 기능을 저해한다. 타우 푸로틴(Tau Protein)은 뇌신경 안에 존재하며 미세관을 안정시키고 뇌가 필요한 요소들을 다른 뇌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타우 프로틴이 손상되어 Tau Protein Tangles(TPT)이 형성되면 영양 운송 기능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살상시킨다.

**Vascular Dementia (VD)**는 심장 질환에서 발생하는 치매이다. VD는 뇌졸중 후 갑자기 발생하거나 또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장질환 (HD) 위험 요소가 장기간 존재할 때 발생한다. AD와 VD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병행 할 수 있다. 심장질환이 VD의 주요 요인이지만 AD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한다(HMS, 2013 & 2016). 예를

이러한 견해는 경제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시장불개입주의의 극단적인 예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키틀랜드(Finn Kydland)와 프레스콧(Eduard Prescott)이 인용한 사이렌의 비유이다. 사이렌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반은 여자가 반은 새와 같은 모습의 자매들이다. 사이렌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산호초 밖에 살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했다. 노랫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그 소리를 따라 사이렌에 다가가려다가 배가 난파되어 선원들은 죽음을 맞곤 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인 이타카로 항하고 있었다. 그는 뱃사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해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그 자신을 돛대에 공중 동여매게 함으로써 사이렌에 다가갈 수 없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이렌의

들어, 고혈압이 혈관을 손상시켜 HD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탑재한 혈액을 뇌에 충분히 배달하지 못해 AD로 연결된다. 그 결과로 많은 VD 환자들이 AD 환자가 된다. 심장 질환 외에도 Apolipoprotein E 유전자가 AD와 VD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Apolipoprotein E (ApoE) 유전자**는 일종의 단백질인데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흐름과 혈당 수준을 조절한다(NRN, 2013; NIH, 2013). ApoE 유전자는 세가지 종류 (e2, e3, 와 e4)가 있는데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질환 (HD)을 물려받지만 e4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높은 혈액을 뇌로 운반하여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 대신, e2는 혈액 순환과 혈관내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신진대사를 촉진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 키틀랜드와 프레스콧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디세우스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묶인 채 강물 따라 흘러갈듯이 경제를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나 그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통화량을 축소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었음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했고 신자유주의가 200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자본주의 4.0>>을 쓴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자본주의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여 치매 위험성을 낮추어 준다(NIH, 2013). 부모로부터 두개의 e4를 받으면 치매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지만, 치매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치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Alois Alzheimer**가 1906년에 치매를 Alzheimer's Disease(AD)라 명명한 후, 지난 한 세기 동안 의학계와 제약 회사들은 BAT와TPT가 치매의 근본 원인이라 간주하고 이 두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항생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 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따라서 지난 5~6년 전만 하더라도 치매는 불치병이라 단정했다. 최근에 와서야 BAP와 TPT를 제거해야 치매가 치료된다는 고정 관념(Amyloid Hypothesis)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치매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L-serine**도 일종의 아미노산인데 BMAA 제거, BAT와 TPT 성장억제, 중추신경 역할 강화, 항독소제 생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서술한 원숭이 임상 실험에서 BMAA를 섭취한 원숭이들이 BAP와 TPT 증세를 보였지만, L-serine을 섭취한 원숭이들은 BAP와 TPT 증세가 없었다. BMAA와 L-serine을 다른 비율로 투입했을 때, L-serine을 더 많이 받은 원숭이들이 훨씬 낮은 BAP와 TPT 증상을 보였다. Guam 원주민들도 L-serine을 장기간 섭취하면서 치매증상이 감소했다 한다. 또, 오키나와 Ogimi 노인들이 L-serine이 풍부한 해물과 두부 등을 섭취하면서 치매 증상 없이 장수한다(Cox, 2017). L-serine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만 L-serine 결핍 환자들은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달걀, 콩, 생선, 해물, 참깨, 땅콩 등도 L-serine이 풍부하다.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젊었을 때부터 심장 질환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 요소를 약물 치료, 운동과 식생활 개선으로 혈관성 치매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는, 치매 유도체인 악성 아미노산 BMAA가 존재하는 주변 환경과 이것으로 감염된 음식물을 피하고, 치료성분 L-serine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치매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전 버지니아 주정부 알츠하이머 위원회 위원

라 본다.

**BMAA Amino Acid**는 독성 물질로 신경 세포 주변에서 BAP 형성을 한다. Paul Cox 에 따르면 Guam의 Chamorro 사람들이 장기간 BMAA가 포함된 Cycad 씨를 섭취하여 치매를 앓고 있었다(Cox, 2016). BMAA는 바다에 있는 해조 미생물(Cyanobacteria), 열대지방 Cycad 나무씨, 습지에 있는 바위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원숭이를 샘플로 하는 임상실험에서 BMAA 와 AD와의 관련성을 확증 했는데 사람을 샘플로 하는 임상실험에서도 확증이 필요하다. BMAA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AD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하게 된다.

**L-serine**도 일종의 아미노산인데 BMAA 제거, BAT와 TPT 성장억제, 중추신경 역할 강화, 항독소제 생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서술한 원숭이 임상 실험에서 BMAA를 섭취한 원숭이들이 BAP와 TPT 증세를 보였지만, L-serine을 섭취한 원숭이들은 BAP와 TPT 증세가 없었다. BMAA와 L-serine을 다른 비율로 투입했을 때, L-serine을 더 많이 받은 원숭이들이 훨씬 낮은 BAP와 TPT 증상을 보였다. Guam 원주민들도 L-serine을 장기간 섭취하면서 치매증상이 감소했다 한다. 또, 오키나와 Ogimi 노인들이 L-serine이 풍부한 해물과 두부 등을 섭취하면서 치매 증상 없이 장수한다(Cox, 2017). L-serine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만 L-serine 결핍 환자들은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달걀, 콩, 생선, 해물, 참깨, 땅콩 등도 L-serine이 풍부하다.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젊었을 때부터 심장 질환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 요소를 약물 치료, 운동과 식생활 개선으로 혈관성 치매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는, 치매 유도체인 악성 아미노산 BMAA가 존재하는 주변 환경과 이것으로 감염된 음식물을 피하고, 치료성분 L-serine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치매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전 버지니아 주정부 알츠하이머 위원회 위원

미국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연구 논문들이 세계 유수의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Finance, Macroeconomic Dynamics 등에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논문 피인용 횟수가 400여 회에 달한다. 국내 저서로서는 <<시가 있는 경제학>> (김영사), <<현대거시경제론>> (법문사) 등이 있다.

###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출처: 모국 동창회보】



이용락 (공대 48)

## 나의

### 남은 소망 목록을 채우는

#### 모국 여행기 - 2018

누구나 사람은 Bucket List 즉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함의 목록”이라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소망함을 채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에 3번째로, 3가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감옥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실질적으로는 무녀독남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지금 생각해도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815해방과 더불어, 당시 “만주”에 있는 일본인 중학교에 극히 소수의 조선인 학생 중 한사람으로 재학하면서, 일본 식민지 한반도의 신세를 뼈저리게 느낀지라, 결심한 “조국 건설”에 기여라는 인생 목표를 세우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며, 저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때의 “초지”를 굳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초지”를 실현하기 위한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몇 사람의 은인들을 만났습니다.

#### <첫 번째 목적: 사람의 도리>

그 은인 중, 최근인 2011년에 만난 사람은 “성진지오텍”이라는 한국의 중견 기업체의 전정도 회장입니다. 그분은 제 삶의 마지막 꿈의 실현을 이룩한 조국의 유일한 사업가였습니다.

저의 공학도로서의 큰 꿈은, “지구상의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동시에 “지연시키는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업시설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에너지 중 적어도 60%는 폐열로 공중에 방출되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의 일부를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대기오염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도 지연시키는 “Win-Win”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ORC(Organic Rankine Cycle) 기술이라 부릅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저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미국의 ORC 기술을 한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선진화”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있음직한 어느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성진지오텍(SGT)”의 전정도 회장이 나의 꿈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과감하게 실천해 주었습니다. 이 외중에 SGT는 대기업 포항제철(POSCO)에 합병되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저

의 꿈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폐열 에너지 방출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바로 POSCO 공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 2012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원인 Vermont 주에 소재하는 ConceptsNrc와 POSCO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는 POSCO의 여러 다른 시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도중, 갑자기 POSCO 회장이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신입 회장은 “POSCO의 철강업으로의 복귀”라는 새 구조 아래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ORC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꿈의 실현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나를 이해한 오직 한 분인,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 "북위 38도선이 있는 양양 휴게소에 있는, '38선 기념탑'을

#### 보면서, 1946년 8월 작은 어선을 타고, 공해를 통하여

#### 부모님과 남한에 밀항하다가, 풍파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 38선을 넘어, 남한의 해안을 따라 포항까지 왔던 옛 추억"

그런데, 그분은 사업가로서, POSCO의 큰 주주이면서,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에 걸려 실행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출옥하더라도 사업가로서는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 이번 조국 방문의 제일 큰 목적은 전정도 회장을 면회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숙소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교도소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걸렸고, 면회 절차를 밟는데 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왕복 11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면회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직접 대화는 못하고, 두꺼운 유리창을 통하여 서로 얼굴은 보며, 양측에 있는 Speakers를 통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쉽게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만났던 장면을 돌아보며, 그래도 내가 인간다운 도리를 했다는 성취감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 <두 번째 목적: 조국 산하 순례>

이번 여행의 두 번째 목적은 조국산하를 둘러보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대한민국에서 산 역사가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는 포항을 떠나 고속도로를 피하여, 동해안의 국도를 속속까지 살살이 구경하며 복상했습니다. 도중에 북위 38

도선이 있는 “양양”휴게소에 있는, “38선 기념탑”을 보면서, 1946년 8월 작은 어선을 타고, 공해를 통하여 부모님과 남한에 밀항하다가, 풍파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38선을 넘어, 남한의 해안을 따라 포항까지 왔던 옛 추억에 잠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부산 기장에 있는 선친의 묘소를 참배한 후,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박장열(공대 60) 박사가, 내가 가장 즐기는 “전복을 먹으면 완도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고, 또 남해군에는 왜구를 치러갔던 이성계 장군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기도로 훗날 왕이 되게 한 보담으로 산을 비단으로 장식하라는 명령을 하자, 산하가 “비단으로 장식하는 것보다, 그 산(원래 이름은 보광산이라 함)을 금산(錦山)으로 명명함”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이성계가 받아드렸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 남해 출신 김정수 동문(문리대 69)의 설명을 들었던지라, 남해와 완도를 우선적으로 여정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해안을 따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명승지를 방문했다. 부산 다대포와 어시장, 삼천포의 Sky Cable Car, 남해안의 수많은 작은 섬들 그리고 멸치 찜밥, 한국의 인공위성 “나로호”의 발사대가 있는 “나로도”, 한반도 최남단의 해남의 “땅끝마을”

있어서 관광 후 완도에 다시 돌아와 미리 예약해 놓은 음식점에 점심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이 식당은 전복은 물론 해삼 기타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요리하여 즉 구운 것, 삶은 것, 날 것 등- 한 상 차려 놓더니, 안주와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때에, 이 상을 싹 치우고, 다시 새로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녀온 소원이 또 하나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상하여 서해안 여행을 시작했으며, 그중에 인상적인 것은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 여수 Expo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수 Expo 전경과 부근에 보이는 오동도였습니다. 계속하여 순천만 국립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목포대교를 거쳐 전라북도의 “새만금 방조제 40KM의 중간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고군산 군도)이 연결되는 장관을 보고서, 고속도를 통해 충청남도를 거쳐 경기도 안양까지 무사히 4박 5일의 여정을 마쳤으므로, 조국의 산하를 일주하는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 <세 번째 목적: 그리운 친구 만나기>

마지막 목적은, 그리운 옛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2년 동안 선배 한 분, 동기생 하나가 타계하고, 2년 전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기생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계공학과 동기이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12년간이나 봉사한 임광수 회장(공 48)을 만났더니, 아직도 매일 자택에 마련된 체육시설에서 2시간 반식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국에 있는 동기생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은 선배를입니다. 나에게서는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조완규 박사를 만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조완규 총장은 나와 학번은 같으나 문리과 대학 출신인데, 수년 전에 알고 보니 나보다 한 살 위인 “용띠”라 그날부터 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초 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 30인에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관악 Campus 내의 고급식당에서 식사 대를 계산하는데 50% discount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나의 남은 소망을 이루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62년 전인 1957년 British Council Scholarship으로 영국 유학을 갈때, 동행한 당시 고려대학교의 영문학과 김진만(~45학번) 교수였습니다. 그때 김진만 교수와 함께 Hong Kong까지, 나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함께 4 주간이라는 긴 기간 Suez Canal을 통하여 지중해를 거쳐 London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각각 England와 Scotland에서 공부했고, 귀국 후에도 서로 친근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작고했음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소망함 채우기를 “2010년에 시작했었다라면.....”하는 후회가 지금도 남아있고, 이젠..... 소원을 성취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요즘 문제가 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전라남도 “나로도”에서 본 위성의 모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매우 컸습니다. 그것을 보고, ICBM의 실물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숙소에서 1박한 경험은 특별하였습니다.

완도를 가기 전에, 해남의 “땅끝 마을”을 먼저 방문했는데,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본 해상의 작은 섬들의 풍경은 한편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완도는 가까이 보였으나, 이와 연결하는 다리는 더 북쪽에



최진영 (문리 55)

처음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4.19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경제파탄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6.25 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Fulbright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서울대 입학시험보다 어려웠던 3단계의 시험을 거친 후, Fulbright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1961년 김포공항을 떠나 Tokyo, Anchorage를 거쳐 Seattle에 도착하였습니다. 영어 듣기, 말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어 Boston으로 가서 친구 이인호 씨를 만나고 곧바로 나의 정착지인 North Carolina University-Chapel Hill로 떠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Harvard나 Stanford로 가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문리대 영문과 학생일 때, 교환교수로 Chapel Hill에서 오신 A. C. Howell 박사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문학의 중심은 남부라고 하면서 Chapel Hill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William Faulkner, Thomas Wolfe, Flannery O'Connor, Eudora Welty 등의 유명작가들이 모두 남부 출신이었고 그들의 작품의 배경은 남부였습니다.

드디어 Chapel Hill에 도착하면서 그곳의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과 캠퍼스에 그만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넓은 풀밭에 누워서 책을 읽는 학생들, 애인과 포옹한채 누워 있는 학생들,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떠나온 조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루 세끼 식권이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기숙사 친구들과 환담을 하며, 즐기던 시간, 저녁 식사 후, 깨끗하고 안락한 대학원생 기숙사에서 매주일 제출하는 숙제를 쓰느라 바빴던 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타이프라이터를 썼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어 타이프라이터는 모두 기숙사 지하 공부방에 있었습니.

매일 강의 듣는 재미, 아무런 잡념없이 공부에만 열중했던 그리고 평화롭고 따뜻했던 환경, 때로는 내가 어느 낙원에 와 있는 가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Howell 교수 부부가 방이 하나

### 남부 문학과의 만남

비어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있으라고 하면서 하루는 ‘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Duke 대학으로 산보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Duke는 남부의 Harvard라고 부르며 건물이나 Campus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날 이상한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이의 주소는 생소한데 저의 기숙사 주소는 정확하였습니다. 열어 보니 분명히 미주 북한대사관이나 북한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편지와 일종의 소셜이었습니다. 어서부터 반공교육이 몸에 녹아있던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포의 주소와 내용물을 왜 적어놓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시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낼까 하다가, 그 소포를 신문지에 몇 겹으로 싸서 쓰레기통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한창 후에야 너무 순진하고 바보였던 내가 문학공부를 하러온 학생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약 2년간 The Korean Republic(현 The Korea Herald)에서 기자로 일을 했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 매일 영어로 글을 쓴다는 일념으로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 영자신문이 이승만 대통령의 직속 정부기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외사계 형사들이 찾아왔던 기억이 나지만 형식적인 절차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후, Chapel Hill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Raleigh와 Salisbury의 조그만 사립대학에서 영문과 시간강사로 약 2년간 재직 후, 떠났습니다. 그러나 Chapel Hill은 항상 내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영상으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 Margaret Mitchell의 “Gone with the Wind”,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 모두 남부의 작품들입니다. 지난 11월에서 12월에 걸쳐 ‘Great American Road’라는 TV 문화 프로그램에서 100권의 책을 선정할 후, 매권마다 작가나 저자(생존한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이 “To Kill a Mockingbird”였습니다. 미국 남부 Alabama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현재 이 작품이 연극으로 쓰여 Broadway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문학 전통의 힘입니다.



오(조)봉완 (법대 53)

###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산

고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1월 28일에 만 92세로 별세한 전 위안부였다. 14살 때 끌려가 태평양 전쟁 중 일본제국군 성노예 생활을 수년을 했다. 그분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며, 소액의 저금 외에는, 재산도 없었다.

그런 분의 유산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다는 듯, 다음 같은 질문을 한다.

“유산? 무슨 유산? 어떻게 전 위안부가 유산이 있을 수가 있어?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말도 안 돼”

그런 질문을 하기가 당연하다. 사실이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주로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01에 본인과 동료가 공동 집필한 위안부에 대한 최초의 학술 저서의 제목을 “제2차 대전의 위안부의 유산(Legacies of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sup>1</sup>이라고 지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다. 그 후 18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런 비평이 덜하겠지만, 위안부 생존자들과 유산이라는 것은 아직도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유산”이 물심양면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물질 부분에 대하여 말하겠다. 김복동 할머니는 알뜰하게 모은, 적금을 다 털어놓아, 세계의 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의탁했고, 장학재단을 세워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진학에 돕도록 마련했다. 앞으로 일본에서 정식 보상을 사후이라도 받으면, 금액 전부를 이상의 자선사업에 보태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러나, 김 할머니의 유산은 비물질적인 면, 정신적이고 활동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자기의 불우한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극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위업을 부여했다. 그분의 몸차림, 언행, 대인 관계 등에 위엄과 자신감이 속에서 나오는 빛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를 것이 없

이, 부모 슬하에서, 풍부한 가정에서, 별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들도 자신감의 부족이 문제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김 할머니와 같은 비참한 과거를 갖은 분이 얼마나, 남모르게 노력을 하였으면 그렇게 위엄이 있고 자신이 있게 보였을까?

그분은 자신 혼자만의 수련에 그치지 않았 다. 그분은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 중 제일 많이, 제일 열심히, 여성권과 인권 향상 또 정의의 추구에 활동 한 분 중의 한 분이시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매 수요일 정오 데모에도 부지런히 참석하셨었다. 이분의 명성은 널리 퍼져, 이분 별세의 뉴스는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다.

김 할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광대한가, 두 가지 예만 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 하였고, “나비<sup>2</sup>처럼 훨훨 날아가시오”라는 친필의 노트를 남기셨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sup>3</sup>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일급의 일간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김 할머니 작고에 대한 기사가 A 부분의 2/3면을 차지했다. 이것은 유명한 한국 출신 최상훈 기자의 기사다. 그 안에는 사진이 둘이 나 들어 있고, 김 할머니에 대한 상세한 사실과, 위안부를 둘러싼 복잡한 한-일관계와 국제관계를 묘사한 기사였다.<sup>4</sup>

일개 보잘 것 없는 전 위안부가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다니? 김복동 할머니가 1992년에 고백 선언을 했을 때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 일인가?

이것이 모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산이 아니면 무엇인가?

1. Margaret Stetz and Bonnie B.C. Oh. Eds. Legacies of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Armonk, NY: M.E. Sharpe, 2001).  
2. 노란색 나비는 위안부의 상징이다.  
3. 중앙일보 시카고 (2019/1/30-31), 1, 6면.  
4. Choe Sang-hun, The New York Times (January 30, 2019), p. A22.

사학자  
위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이사/교문

이방은 동문의 미국 생활기

이방은 (음대 62) 동문 "음악은 내가 받은 신의 은총이고 아버지의 숨소리"

오늘 이 자리에 첼리스트 이방은 선배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다니신 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울예술고등학교(1960~62)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서 첼로를 전공했어요.(1962~66)

음악콩쿨 등에서 수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아일보 주최 전국 음악콩쿨에서 1등 없는 2등을 했어요. 상을 단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에서의 연주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휘자는 김만복씨였어요. 그리고 1968년에 나운영 작곡 "Cello Concerto"를 초연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이었는데, 지휘는 나운영씨가 맡았지요.



1968년 나운영 Cello Concerto 초연

음악가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신 이인형 아버지 외에 동생 이방희(음대 67)가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Mannes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촌 이방숙(음대 61) 언니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와 교수로 재직하다가 연세대학 학장까지 지냈어요. 지금은 정년 퇴직했지요.



동생 이방희, 사촌 이방숙과

대만에 가시게 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대만에 처음 가게된 동기는, 1970년 대만에서 주최한 '화강 Music Camp'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요. 그 당시 중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Helen Quach"라는 여류지휘자가 주최한 Camp였읍니다. 그 곳에서 학생들 첼로도 가르치고 연주도 했지요. 그것을 계기로 "Taiwan Provincial Orchestra"에 수석주자로 초청 받았어요. 그리고 "Chinese Cultral College"에서도 첼로교수를 부탁하는 초청을 받았지요. 거기서 1973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럼 대만성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 대해 들어 볼까요?

대만에 체류한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여



이방은

러 차례 협연했어요. 대만에서 처음 연주한 곡은 "Saint-Saens의 Cello Concerto"였고, Taipei와 대만의 여러 도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순회공연을 다녔습니다. 1971년 "Edouard Lalo Cello Concerto"를 협연했어요. 장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971년 대만성 교향악단과 협연

대만에서의 마지막 연주는 1972년 5월10일에 동생 이방희(Violin, 음대 67)와 CAFCA Center, Taipei에서 었습니다. 곡목은 "Haydn concerto in D major, op.101"와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for Piano, Cello, Violin" 입니다.



1972년 동생 이방희와

미국 오시게 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꿈은 음악공부를 외국에서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다니신 학교와 연주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73년에 Honolulu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들어 갔어요. 1974년에는 뉴욕 Mannes 음악대학(Post Graduate Diploma)에 입학하여 1978년에 졸업했습니다. 첼로는 Claus Adam 교수에게서 사사(1974~78)했습니다. 졸업 후 Downey Symphony Orchestra, Burbank Symphony Orchestra, Santa Cecilia Orchestra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음악은 나의 심장을 벅차게 그리고 뜨겁게 해주는 힘이고, 그 벅찬 가슴을 터놓고 큰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연주였습니다. 천재들이 신의 성령을 받아 작곡한 그 많은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연주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목적이 아닐까 나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리: 홍선례 문화국장】

육이오 전, 부친의 젊은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목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교회 피아노 덕분에, 피아노를 늦은 나이인 16세 때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으로 유학가서 "쿠니다지"라는 일본 동경에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매일 아침 피아노를 치시던 아버지의 넓은 등어리 뿐입니다.

육이오 사변이 나고 나는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별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 때 이방은 선배님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겠네요.

제가 1944년 생이니가 6살이었어요.



아버지와, 한살반 때

언제 사망하셨습니까?

북한의 동생들 통해서 들었는데, 1983년에 병환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방은 선배님 북한에서의 연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990 가을,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초청 받아 남가주 대표로 참가했고, 그 곳에서 처음으로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1990년 처음 만난 동생들과

피아니스트인 남동생 리민섭과 함께 평양에서 연주를 했어요. "노을 비긴 바닷가"라는 서정적인 곡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그 이후 1991년 4월 봄, 예술축전에 참가해서 동생 리민섭과 함께 연주를 계속했는데, 2001년까지 모두 10번 참가했습니다.



1990년 리민섭 동생과

평양 국립교향악단과 협연은 몇 차례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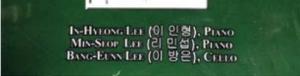
1995년 4월 17일에 평양 만수대극장에서 "Edward Lalo Concerto in D minor"를 협연했습니다. 그 후 1997년 4월 20일에 모란봉 예술극장에서 "Dvorak Concerto in B minor op.104"를 협연했어요. 또 1998년 4월 10일에는 모란봉 예술극장에서 "Tchaikovsky Rocooco Variation op. 33"를 협연했지요. 그 외에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Saint-Saens Concerto A minor, op. 33"과 "Gabriel Faure 작곡 Eergy, op.24" 등도 협연했습니다.

지휘자는 누구였는지요?

협연 당시 평양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병화씨입니다.

동생들 만났을 때의 소감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지도 몰랐던 동생들을 처음 만나면,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열음이 녹아내리듯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처럼 피아니스트이기에, 우리는 같이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동생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삶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그 분이 피아노 교수 하시던 교수실도 들어가 창문 밖도 내다볼 수 있었고, 항상 다니시던 거리도 걸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이 모인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 우리 남매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한풀



625사번 전 부친

부친이 월북하시게 된 경위를 들어 볼까요?

전쟁 때 서울이 북한에게 점령 당했을 당시 교향악단이 생겨서 많은 음악가들이 조인해서 활동했고 아버지도 단원이었어요. 연합군이 들어와서 서울 탈환할 때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북으로 후퇴했다고 하더군요.

부친 생존시 북한 대학에서 강의하셨다고 들었어요.

평양 음악 무용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셨어요.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다니는 음악과 무용을 가르치는 대학교지요.

나는 말이 아닌 내 행동으로 풀어놔야지.

아, 바로 이것이 '코스미안의 길'이여라.

이태상

'코스미안의 길 (The Cosmian Way)'



이태상 (문리 55)

"나 심심해"라면서 칭얼대는 어린애의 이 한마디에 부모 특히 엄마들은 공포심과 짜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다며, 2019년 2월 3일 자 뉴욕타임스 일요판 칼럼 '애들을 다시 좀 심심하게 내버려 두라'는 제목의 글에서 뉴욕타임스 서평 주간지 편집인이자 곧 출간되는 신간 '어떻게 책을 읽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의 공동 저자인 팡벌라 폴은 이렇게 주장한다. "무로함의 창의성과 자족감을 낳는 다"고.

줄리아 카메론의 저서 '예술가의 길'은 지난 4반세기 동안 4백만 권 이상 팔렸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글 소재가 고갈돼 고민하는 작가들과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갈 길을 안내해주는 북극성(순우리말로 북바이벌) 역할을 해 온" 책이다.

1992년 출간될 당시 이 책의 출판사 타처/펄핀의 발행인이었던 조엘 포토노스 씨는 회상한다. 초판으로 9천 부를 인쇄하면서 책이 안 팔릴 것 같아 걱정했었다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다며, 종교나 교양 서적 등 기존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아 이 예술가의 길'이 처음으로 '창의성(개발)'이란 카테고리 새로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세인트 마틴 프레스 출판사 편집장인 포토노스 씨는 요즘도 자신이 신간 '예술가의 길'을 집필했다는 저자들의 원고가 쇠도 하고 있지만, "원조 '예술가의 길' 저자인 줄리아에게 창의성이 생존수단으로 그녀에게 있어서의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 힐링의 '약'

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이방은 선배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첼로를 늦게 시작했지만, 나에게 음악은 마치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나의 삶의 목적인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 맹목적인 믿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같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버지는 피아노를 점심 때까지 치셨지요. "점심 잡주세요."하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등을 두드리던 생각이 지금도 새삼스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에 매달리셨으니 늦게 시작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 제일가는 피아니스트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칭송은 아버지 없이 자라나던 나에게 한없는 위안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전쟁나기 전 아마도 내가 세살 쯤 됐을 그 시기에 아버지는 서울교향관현악단과 여러 차례 협연을 하셨습니다. "Edward Grieg Concerto, Beethoven Concerto No 3, Tchaikovsky Concerto" 그리고 협주곡, 베토벤 협주곡 No 3,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등이지요. 지금도 가슴 아픈고 생생한 기억은, 아버지에게 내가 무대 위로

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책 내용이 진솔하고 많은 독자의 감동과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게 어디 작거나 예술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일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창의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다.

칼릴 지브란 (1883-1931)이 그의 잠언 우화시집 '모래와 거품(1926)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듯 말이다.

나는 영원토록 이 바닷가를 걷고 있지, 모래와 파도의 거품 사이로. 파도가 밀려오면 내 발자국을 다 지워지고 바닷 바람이 거품을 다 불어 없애버리지만 바다와 바닷가 모래사장은 영원토록 남아 있지.

바다 안개 한 줄 손에 잡았다가 손을 펴보니 그 안개가 한 마리 빌래었어. 다시 손을 움켜쥐었다가 펴보니 한 마리 새였어. 또 다시 손을 움켜쥐었다가 펴보니 한 새가 슬픈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움켜쥐었다가 펴보니 손 안에 아무 것도 없이 안개 뿐이었어. 하지만 너무도 달콤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그대는 축복된 산 복산에 대해 들어보았을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만일 그대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다면 그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뿐일 거야. 아서 산을 내려가 저 깊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산이 복산이라고 불리는 거지.

말이라는 감옥에 내가 가둔 모든 생각들을

뛰어가서 드린 꽃다발의 국화꽃 향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연주 후 꽃다발을 받으면 가슴이 몽글해지곤 해요. 음악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의 은총이고 아버지의 숨소리이며 나에게 한없는 영광입니다.

1991년11월2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소나타 의 밤"을 사촌언니 이방숙 교수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 이후 헛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금호아트홀에서도 이방숙 교수와 소나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992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연히 사망했습니다. 큰 말이 14살, 아들이 9살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에게 음악의 세계가 없었다면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는 더 열심히 연주 생활을 했습니다. 1993년에는 한국에서 독주회를 하는 등, 연주생활의 끊임없는 연속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이방숙,

-----

The Cosmian Way

"I'm bored." It's a puny little phrase, yet it has the power to fill parents with a cascade of dread, annoyance and guilt.

This begins The New York Times Sunday Review (February 3, 2019) Opinion Column article 'Let Children Get Bored Again' by Pamela Paul, The editor of the Book Review and a co-author of the forthcoming book "How to Raise a Reader." "Boredom spawns creativity and self-sufficiency," she argues.

'The Artist's Way' by Julia Cameron has sold more than four million copies, as the author puts it "that has been a lodestar for blocked writers and other artistic hopefuls for more than a quarter of century."

The first printing was about 9,000 copies, said Joel Fotinos, formerly the publisher at Tarcher/Penguin, which published the book. According to Mr. Fotinos, there was concern that it wouldn't sell. "Part of the reason," Mr. Fotinos said, "was that this was a book that wasn't like anything else. We didn't know where to put it on the shelves did it go in religion or self-help? Eventually there was a category called 'creativity', and 'The Artist's Way' launched it."

Now an editorial director at St. Martin's Press, Mr. Fotinos said he is deluged with pitches from authors claiming they've written "the new Artist's Way." "But for Julia, creativity was a tool for survival," he said. "It was literally her medicine and that's why the

이방희와 함께 피아노 삼중주 콘서트를 금호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음악은 나의 심장을 벅차게 그리고 뜨겁게 해주는 힘이고, 그 벅찬 가슴을 터놓고 큰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연주였습니다. 천재들이 신의 성령을 받아 작곡한 그 많은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연주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목적이 아닐까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음악회에 오신 어떤 분이 말했어요. "다음에는 더 크고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하세요. 아깝습니다."

그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장사나 청중의 숫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음악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며 인간을 승화시키고, 하늘을 훨훨 날르게 한다는 것을."

또한 이방은 동문은 최근에 그동안 연주한 실황연주 등에서 선곡해서 CD를 만들었

book is authentic, and resonates with many people." Needless to say, this must be the case for everybody, young and old, not just for writers and so-called 'artists'. Each and every one of us was born with 'creativity' in order to swim, not to sink.

Just as Kahlil Gibran (1883-1931) comments in his book of aphorisms, poems, and parables, Sand and Foam(1926):

I am forever walking upon these shores, Betwixt the sand and the foam. The high tide will erase my foot-prints, And the wind will blow away the foam. But the sea and the shore will remain Forever.

Once I filled my hand with mist. Then I opened it and lo, the mist was a worm. And I closed and opened my hand again, and behold there was a bird. And again I closed and opened my hand, and in its hollow stood a man with a sad face, turned upward. And again I closed my hand, and when I opened it there was naught but mist. But I heard a song of exceeding sweetness.

You may have heard of the Blessed Mountain.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our world. Should you reach the summit you would have only one desire, and that to descend and be with those who dwell in the deepest valley.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Blessed Mountain.

Every thought I have imprisoned in expression I must free by my deeds.

This is rather The Cosmian Way, methinks.

Tae Sang Lee  
Chairman of Cosmian News

데, 이 음반에는 북한에 있는 피아니스트 동생과 함께 연주한 "노을비긴 바닷가"도 수록되어 있다. 위진록 수필가가 "Valley Korea News"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내가 아작 벨리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여류 첼리스트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그 풍요로운 음량과 뛰어난 기교가 자아내는 서정성은 그대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 안타까우리만한 서정성은 첼리스트 자신의 곡질 많은 인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1990년 가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음악회"에서 그 곳에 사는 이복동생인 리민섭과의 듀오를 직접 들은 필자는 그 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17년,LA



2018년 LA 독주회 포스터



김옥영 (문리 52)

## Mrs. Jameson의 빨간 Convertible

내가 부산에서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유학 온 해는 바로 휴전조약이 체결된 1953년 8월 초,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였다. 도착한 곳은 나의 언니와 오빠가 이미 와 있었던 Chicago였다. 개학이 되어 9월 초에 Greyhound 버스 터미널까지 언니와 오빠가 데려다주면서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하다고 당부하면서 나를 보내줬다. 2년 전 미리 유학 왔던 그들은 벌써 미국화가 되어 있다고 믿고 나는 언니가 챙겨 주는 대로 새로 사준 연보라색 나일론 블라우스에 폭 넓은 검은색 스커트에 굽 높은 뾰족 구두 신고 장갑까지 낀 모습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그 당시는 버스 여행도 외출 정장이었다. 냉동 장치가 지나치게 되어있어 차내의 유리창은 바깥 습기로 빗방울이 흘러내린 듯 얼룩 거리고 뿌연다.

부산의 삼복 무더위는 이미 내 감촉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장갑 낀 손으로 창문을 문질러 밖을 내다보니 형광등 밑에서 비친 손을 흔들고 있는 내 형제들의 얼굴이 백인들 사이에서 유별나게 누르스름했고 몸 모습이 축소되어 어쩐지 초라하게 눈에 띄었다. 처음으로 이방인 동양인과 백인의 대조와 격리를 목격해서 아찔해졌다. 66년 전 이야기다.

내가 가는 곳은 밤새 여러 군데 정거장마다 정류하면서 10시간 걸려 도착하는 미주리 주 한 소도시의 학생 수가 400여 명뿐인 조그만 기독교에 기반을 둔 여자 2년제 대학이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 한 군인이 목직인 배낭을 좌석 위 선반에 실어 올려놓고는 내 옆자리에 철석 앉았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출생이었다. 나를 보고 Chinese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Japanese? 나는 Korean이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미주리 주 어느 대학 유학생으로 장학금 받아 공부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지금 한국에서 막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한국 사람들은 전쟁민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뿐 인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온 수 있는 한국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며 자기는 인제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평생 농사꾼으로 살 것이고 대학 갈 꿈도 꿀 수 없다면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의 순진한 표정은 이날이 될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버스가 밤새 달리고 정류하며 여러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나는 꾸벅 졸고 있었다. 새벽녘에 눈 떠보니 그 출병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침 8시쯤에 도착했다. 여러동절 추축하게 서 있던 내 주위에 사람들이 물려왔다. 흥안의 백발 신사가 만면에 웃음 짓고 내

손을 쥐고 "Welcome, welcome!" 하면서 자기는 그 대학의 교장이라 한다. 사진기자가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있다. 이날날 아침 신문에 내 얼굴이 나에 대한 짧은 기사와 함께 크게 나와 있었다. 나는 뜻하지 않게 celebrity가 되고 말았다. 그 대학 역사상 최초의 외국 유학생이자 자기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공산주의에서 구해 내준 이름도 몰랐었던 Korea라는 나라에서 온 나의 환영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은 또한 대단했다. 나는 사방으로 끌려가서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나는 미주리 주 어느 대학 유학생으로 장학금 받아

공부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지금 한국에서 막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한국 사람들은 전쟁민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뿐 인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유학 온 수

있는 한국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하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의 순진한 표정은

이날이 될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없었다. 말도 서툰고 청중 앞에서 public speech라는 것도 생전 해본 적이 없으나 장학금을 받는 한 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옷을 입고 찬송가를 우리말로 불러 달라 하는가 하면 부인회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이야기 또는 민요를 부탁받았다. 무슨 말을 이결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온다.

내가 불러 다니면서 노래하는 것을 들은 우리 대학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나보고 정식으로 성악 레슨을 자기한테서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 Mrs. Jameson은 나를 잘 가꾸어 길러 “나비부인”으로 등장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 당시는 조수미나 흥해경 같은 천재 한국 소프라노가 온 세계무대를 휩쓸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니었다. 광대나 하는 천한 것이라고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유행가는 몰래 흥겹게 뿡아내고 찬송가도 제법 엄숙한 목적으로 남들과 함께 소리 높이 불렀으나 불행히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실상 오페라 목소리는 내 목구멍에서 나와 주지 않았다. 뿐더러 무대에서 서서 많은 청중 앞에서 연극하면서 아리

아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신과 용기는 없었다. Mrs. Jameson은 무척 실망했으나 내가 제법 "Un bel di"(어느 맑게 갠 날) 하나가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꾸준히 견디어 주었다.

Mrs. Jameson은 미주리 주에서 널리 알려진 Ford 자동차 부호 판매업자의 아내였다. 1950 대는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었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지붕을 걷어서 벗겨 제친 빨간 Ford 컨버터블을 금발을 휘날리면서 운전하는 그녀의 멋지게 뻗어난 팔목에는 금 팔지가 언제나 달랑 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상적 미국 여성의 극치를 엿봤다. 독립, 자신, 자유, 전부 누리는 여인상. 나도 언제인가는 그녀같이 저런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환상이었다. "American Dream"은 그림의 떡이었다.

나의 목적은 번역자였다. 2학년 되던 때 영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하여 필수과목 "영문학개론"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과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죽어 버릴까?" 영국 낭만주의 시인 Percy Shelley(1792-1822) 의 시 "Adonis: an elegy on the death of John Keats." Shelley가 젊은 시인 John Keats (1795-1821)의 주검을 애도하는 시 옆에는 이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Mrs. Jameson이 빨간 컨버터블을 몰고 지나간다."

내가 있었던 기숙사 방은 차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일요일이면 학생 전부가 교회에 간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못 가면서 창가에 있는 책상에서 바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풍경을 관찰하는 것이 피로한 눈을 달래주는 오직 하나의 위안이었다.

내 1959년 신혼 생활 당시 남편 (의대 47)은 중고차 Plymouth를 몰고 있었다. 하루는 차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Oil change 하지 않고 내내 몰고 다니다가 길에서 연기를 뿜으며 엔진에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차가 멈췄다고 한다. Roadside service를 부르니 mechanic의 첫 번 말이 언제 oil change 했느냐고 물었다단다. 남편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했더니 그 사람은 두말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충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가문의 남길 이야기 꺼리로 폭소와 함께 잘 간직하고 있다.

겨울에 snow tire를 바꾸지 않고 아이들을 싣고 highway를 가다가 눈에 파묻힌 tire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뒤에서 오는 차에서 헛김에 여러 사람이 뛰어나와 밀어줘서 tow truck 에 실려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자동차 초보 지식을 배우고 중고품 Plymouth가 새 Buick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Oldsmobile station wagon으로 승급도 했다. 선비의 후예인 학자 남편이 살아남기 위한 기계 문명의 적응은 남들보다 더 힘들었다.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가버리고 나도 내 직장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영문학을 전공했으니 영어가 native tongue이 아닌 나로서 직장 구하기는 힘들었다. "현모양처"라는 동양 미덕에게 잠재의식 속에서 구속받고 자라난 우리 세대 여성들은 자기를 내 새우고 사회 직장에 뛰어 들어가 경쟁해야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얻어 librarian 직장을 구해 직업여성의 생활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두 문화를 언어를 통해서 연결하는 번역자로 내 희망을 달성하게 된 셈이다.

1970년대 일본 차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능가하고 Ford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가 밀려 나가 우리도 Honda로 바꿨다. 그 Honda는 둘째 아들이 의과 대학에 다닐 때 주고 우리는 새 Toyota Camry를 의젓하게 몰고 다녔다. 1980년에 들어서자 친지들이 점점 크고 호사스러운 집을 짓고 Mercedes Benz 나 BMW를 운전하고 다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평범한 집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무리 없는 그 Toyota로 셋 아이들 대학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오랜 세월 문제 하

"왜 왔나?" "난 죽어도 더 못 견뎌!"



장동만 (문리 55)

## 우리 조상

### 흑시 노비 (奴婢)?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흑역사 (黑歷史=Dark/Black History)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짐승처럼 부리고, 또한 오랜 동안 인간 양심을 마비시킨 슬픈 역사(哀史)다.

그런데 조선에 있었던 노비(奴婢)제도가 이 흑인 노예 제도와 맞먹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도였음을 요즘에 서야 알게 되었다. 학자들의 저서와 글, 신빙성 있는 여러 사료(史料)들을 기반으로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 한 번 살펴본다.

이조 5백 년-고려 이전은 여기서 제외한다-조선 전통 사회는 기본적으로 네 계층, 즉 양반(兩班), 중인 (中人), 상민 (常民), 천민 (賤民)으로 나뉘어진 계층 사회였다. 노비는 이중 가장 아래 계층인 천민에 속한다. 노비의 '노(奴)'는 남자 종, '비(婢)'는 여자 종을 말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 '종'이 아니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과 다를 바 없는 100% 노예였다.

우선, 이들은 돈으로 사고 팔렸다. <경국대전> <형전>에 따르면, 노비의 값은 나이 열여섯 살 이상 천 살 이하면 저화 (종이 돈) 4천 장, 열 다섯 살 이하이거나 천 한 살 이상은 저화 3천 장이었는데, 노비의 하루 평균 임금이 6장이었으므로 666일 어치의 임금 이었고, 이는 논 20 마지기 소출에 해당 되었다. 조선 후기 노비의 가격은 20양, 일반 가족의 반 값이었다.

이렇게 노비를 사람아닌 재산으로 간주, 재산 상속 문서의 맨 위에는 땅이나 가옥보다 노비 수가 먼저 올랐다. 이들은 부모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일천축전(一錢則錢)에 의해 자자손손 노비였다 (奴婢 世傳法). 미국의 'One-Drop-Rule과 다를 바 없었다.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왕(聖王)으로 받드는 세종 때 '노비 중부법 (從父法)'을 '노비 중모법 (從母法)'으로 바꾸어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노비를 중식, 소유주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책략이기도 했다.

나 없던 고마운 차였다. 우리 나이가 80을 넘어서자 아이들이 Lexus를 우리에게 선사했다. 그 차는 가장 안전하다는 충고를 고품의 부모에게 강조했다.

이제 Hyundai가 Ford를 이겨나가고 있다. 그리고 보니 나는 빨간 컨버터를 한번 운전해보지 못 했던 것에도 아쉬움을 추호도 없다. 나는 60여 년 이만 생활에서 "American Dream" 보다 더 귀한 것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Kipling의 시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 and never the twain shall meet"("동은 동이요 서는 서이기에 그 두 쪽은

으로 상정된다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퇴계 이황은 367명의 노비 문서를 남겼고, 홍문관 부제학 이맹현은 758명의 노비를 재산으로 자신들에게 물려 주었다. 그리고 16 세기 안동의 명문 양반 권벌이 자신들에게 남긴 재산을 보면 노비가 317명 이었고, 18 세기 해남의 윤두수는 584 명의 노비를 물려 주었다.

한편 이조 초기로 올라가면 태종 때 홍길민, 세종 때 안방지의 처 처 (許)씨, 문종 때의 유한 등은 1천여 구(口)의 노비를 소유했고, 특히 세종의 왕자 중 공평대군과 영종대군은 각 각 1만 명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었다는 기록이다. 하기사야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도 수 백명 씩 흑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의 한국학자 제임스 필레 (James B.Palais) 교수는 "천제 인구에서 노비의 비중이



"이 문서는 숙종 15년인 1689년에 노비 막동쇠가 이조로부터 발급받은 입안입니다. 막동쇠는 자신의 상진인 도승지 이맹현의 여름 녹봉을 받기 위해 이조에 증빙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그에 따라 이조에서는 공증서인 입안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정보, http://www.museum.seoul.kr】

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서울 사대문 (四大門) 안 인구 중 노비 비율이 80%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1801년 정순 왕후 김씨에 의해 공(公) 노비 6만 6천 구(口) -구라는 단위는 노비를 세는 단위-가 해방되었고, 같은 해 순조는 '내 노비' 3만 6974 구와 사(私) 노비 2만 9,093구를 모두 양민이 되게 하였다 (순조실록) 는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 노비의 숫자를 상상할 수가 있다.

이리해서 서울에 사는 미관 말직 양반 관료들은 평균 100 여 명의 노비를 소유했을 것

30%를 훨씬 넘는 18 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다. 같은 민족을 대를 이어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 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사가(史家)는 '동방노예지국 (東方奴隸之國)'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는데, 나로서 조선의 노비제가 미국의 흑인 노예제 보다 더욱 가혹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흑인 노예나 고대 히랍/로마 시대의 노예들(주로 전쟁 포로)은 같은 민족이 아닌 이(異) 민족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들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된 것뿐이다.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없다."라고 비판 한다.

둘째는, 미국 흑인 노예제는 관행/관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에 따라 각각 다른 'Black/Slave Code' (Law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중앙 정부 권력이 이에 개입, 관장 관리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이다. '장예원 (掌隸院)'이라는 관서를 두어 모든 노비의 신원을 '노비안 (奴婢案)' 장부에 기재해 관리하고, 각종 노비 분류에 따르는소송을 담당케 했다. 심지어 도망간 노비들을 찾아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는 '추쇄 (推刷)' 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면, '비총법 (比摠法)'에 따라 도내의 노비 수를 일정하게 고정 유지케 하고, 각 고을의 노비 출생자의 다과에 따라 노비 수를 조정했다.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노비는 동물과 같이 매대,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노비 소유주는 그들에게 살해만 빼고, 어떤 형벌이라도 가할 수가 있었다. 관문서에는 노비를 상진의 재산인 우마와 동질시, '우마매한 (牛馬買賣限)'과 동일한 조항에서 취급하는가 하면 군역을 맡은 노비들을 '천예군 (錢隸軍)'이라 불렀고, 노비들의 출생/도망/사망 등을 기록한 '노비안'의 또 다른 이름은 '천적안 (錢籍案)'이라 했다.

서울 출생이지만 사대문 '문(門)안' 아닌 '문밖'인 마포 나루터 태생, 역사적으로 조선 사회가 이렇게 4단계 계층 사회였고, 최하 계층인 노비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史實)을 접하니, "우리 조상도 흑시 노비?"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 나이 80대, 더욱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옛 조상들이 "이랬든 어떤 들, 저랬든 어떤 들" 오불관연(吾不關焉)이지만..

PS. 1) 공(公)노비제는 1801년, 사(私) 노비제는 1894년 공식적으로 폐지 되었다. (령컨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 1865년). 2) 조선 시대 초기 성씨(姓氏)를 가진 인구는 15%, 1894년 갑오개혁 전까지 30%에 불과했다. 노비는 원칙적으로 성씨를 가질 수 없었고 이름만 썼다. 3) '조선 왕조 실록'엔 수 천개의 노비(예)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4) 'One-Drop-Rule'-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법규.

\*참고 문헌: 1) namu.wiki, 2) kowikipedia, 3) 국사편찬위 '한국사', 4) seouland.com, 5) '조선 왕조 실록', 6) '조선의 노예제에 관하여, 7) '한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8) jiskworld.com / 등..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하고 먹지 않던 간혹 복통이 생기는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asymptomatic). 뇌낭미충증(Neurocysticercosis)의 증상은 뇌 속에 있는 유구낭충의 마리 수와 기생 장소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다. 증상은 두통, 혼돈, 발작, 시력 장애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유구낭충이 죽어서 석회화 되면서 주변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기생충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갈고리 조충에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로서 오염된 물, 음식 등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변을 본 후에 철저히 손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잘 익히지 않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인분을 채소 밭에 뿌렸다. 충란이 묻은 채소를 섭취 할 때 감염이 되는 길이었다. 충란은 외부에서 약 2개월 생존할 수 있다.

낭미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 불고기 구이를 할 때 평균 5mm 두께의 돈육은 10 초 간격으로 7집고 한 면 당 80초 정도 익혀야 한다. 5mm 두께는 100초 이상이 적합하다. Oven에서 roast 할 때 돈육의 두터운 부위에 food thermometer를 삽입하여 63°C (145°F) 까지 온도를 유지하여 3분 후에 고기를 자르면 된다.

유구낭충증(cysticercosis)은 약 2000년 전, Egypt 사람이 기술하고 있고 또 후일 모슬렘 의사가 이 병을 발견하였으며 모슬렘 신자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한 이유의 하나가 돼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이 기생충병은 개발도상국가(Latin America, Asia, and Sub Saharan Africa)에 오랜 기간 만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이 병의 발생율은 약 50-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병의 발생율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많이 이민자가 입국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1,000명이 이 병에 감염된다고 보고 되어 있고, 대부분 Latin America에서 온 이민자였다. 뇌낭미충증 (Neurocysticercosis)은 개발도상 국가의 성인에게 발생하는 발작(seizure)의 원인이며, 약 30%의 간질(epilepsy)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 병의 발생률이 매우 적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한다. 한국 TV를 보면, 늙은이들이 치매가 생겨 주변 가족들이 눈물겹게 고생하면서 간호하는 비참한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고령화에 수반되는 노인병이 많이 발생하며 주요 장기가 약물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하여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된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장기이식 요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다. 미국에서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12만 명이 넘고 매일 22명이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한다.

이중 이식은 인간의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동물의 조직 및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식에 필요 한 장기는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종 이식이 떠오르고있다.

초기에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의 장기를 이식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번에 태어나는 개체 수가 적고 성장 속도가 느린데다가 장기의 크기도 인간에 이식하기에는 너무 부

적절하다고 평정을 받았다. 일반 도야지의 3분의 1 크기로 개량 한 미니 돼지의 장기 크기는 인간의 장기 크기와 비슷하다. 임신 기간이 평균 114 일로 짧고 한번에 5~12 마리의 새끼를 낳아 장기 획득에 유리하다. 그리고 돼지는 인간과 오래 같이 지낸 동물이어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병에 대하여 많이 알고있다는 장점도 있다.

1960년 대부터 의학자들은 심장, 신장, 폐 등의 고형 장기 뿐만 아니라 각막, 피부, 연골 등의 조직도 이종이식에 활용하기위하여 동물의 이종장기 이식 활용을 연구하여 왔다. 장기의 기능이나 크기가 사람과 비슷한 돼지는 이종 이식에 가장 적합한 종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종 이식을 하는데 극복하여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하나인 바이러스(retrovirus)가 인간에 전염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타인이나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종 장기 이식의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이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아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다.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감염성 바이러스(retroviruses)가 제거된 새끼 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돼지 장기를 인체에 이식할 경우 바이러스 (retroviruses)가 감염이 안되는 자는 확실히 확인되어 있지 않다.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의 심장 판막이나 휘장 이식 기술은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체 장기를 이식하기엔 아직 길이 멀다.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에서 수집한 여러 장기가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이식 거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에게 이종 이식을 할 때 받아 드리는 유전자 변형된 장기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종장기 이식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장기이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내가 세계 제일의 큰 화학 회사(DuPont Chemical Company)의 산업의학 및 안전성 평가 연구소(Haskell Laboratory)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직물과(Textile Fiber Department)에서 나일론으로 만든 화상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연구 목적은 나일론과 면직물로 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연구를 하는 이유는Alaska에 살고 있는 어부가 기관선을 타고 바다에 고기 잡기를 갔는데 기관실에서 불이 발생하여 고기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큰 화상을 당한 것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작업복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하여달라고 작업복을 만든 회사고 작업복의 원자재인 나일론을 공급한 DuPont 회사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하였다. DuPont 회사는 법정에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일론과 면직물로 만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그런 화상에 대한 동물 실험을 한 경험이 없으니 연구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지 몰라 문헌 조사를 하였다. 세계 2차 대전 때 비행사들이 비행기가 적탄에 맞아 불이 났을 때 비행복에 불이 붙어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상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도야지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동물 가운데 돼지 피부가 사람 피부하고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큰 도야지 여섯 마리를 전신마취하고 등쪽 피부에 나일론과 면옷감으로 된 텐트를 만들어 불을 지르고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화상을 입혔다. 나일론 옷감이 불에 탈 때는 촛불이 탈 때 초가 녹아서 응고덩어리가 떨어지듯이 피부에 떨어졌다. 그와 대조적으로 면 옷감은 불에 전소가 되고 가루만 남았다. 해부를 하고 화상부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나일론과 면옷으로 화상을 입은 조직을 현미경 검사를 하여보니 화상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화상을 입은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나일론 옷감은 나일론 불에 탈때 녹아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곳에 화상이 관찰되었고 면 옷감은 전면적으로 화상을 입었다. 나일론과 면 옷감으로 입은 화상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은 타인이나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종 장기 이식의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이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아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다.

DuPont 회사는 나일론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유명하며 그후 여러 종류의 특수 인조 섬유와 plastic을 개발하였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인조섬유를 개발하여 비행사의 군복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유아복 그리고 화재방지 목적으로 건물 자재와 curtain 제조에 사용하였다. 총알이 뚫고 갈 수 없는 방탄복의 특수 인조 섬유도 개발하였다.

1970년도 중반 경 크리스마스 휴가로 집에 있을 때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연구소에 긴급회의가 있으니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당시 방탄복은 일반에 공개안 된 비밀이였다. 출근하여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보니 Maryland에 있는 국방부 연구소에서 만일 방탄군복을 입은 병사가 총탄을 맞고 총알이 체내에 들어갔을때 같이 인조섬유가 체내에 들어가면 어떤 조직반응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소에서 쥐의 피하에 방탄복 섬유를 집어 넣고 약 2 년후에 해부를 하여보니 많은 쥐가 피하에 암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암성 물질로 구별되어 군복으로 사용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비밀로 국방부에서 그 특수 인조섬유를 사용하여 군복을 만들 계획으로 DuPont 회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연구를 하는 이유는Alaska에 살고 있는 어부가 기관선을 타고 바다에 고기 잡기를 갔는데 기관실에서 불이 발생하여 고기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큰 화상을 당한 것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작업복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하여달라고 작업복을 만든 회사고 작업복의 원자재인 나일론을 공급한 DuPont 회사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하였다. DuPont 회사는 법정에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일론과 면직물로 만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국방부 연구소에 출장을 가서 놀란 것은 방탄 섬유로 민간인이 입는 신사복과 외투가 진열되어 있었으며 외관상으로 일반 옷과 식별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방탄복으로 군복을 사용할 때 일반 군복을 입을 때와 비교하여 전사자 부상자 수가 얼마 감소될 것인가 추산한 숫자까지 있었다. 문헌을 조사하였더니 쥐의 피하에 여러 물질을 심었더니 암이 발생하므로 특이성 인조암이며 이 방법으로 발암성을 확인시킬 때 흡입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흡입농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새 시험법을 추가하였다.

DuPont 회사에서 1970년 경 여러 종류의 특수 플라스틱(plastic)을 개발하였다. 그 중 한

## 298호 | 2019년 2월 호

에 보고서용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요구 한 데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 날 의학이 발달되어 인조 관절을 많은 사람에게 심고 척추에 많은 핀을 꽂아 넣어도 그 설치한 인조 이물 때문에 암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1970년 후반 미국환경청 (EPA)에서 어떠한 물질이라도 그 물질에 대한 독성을 밝히기 전에는 미국에서 사용 못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물질이 독성이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독성시험 결과 독성이 있었어도 자유롭게 학술 잡지에 발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설정 된 후로는 만일 연구소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소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되었다. 나는 이 법 덕택으로 DuPont 회사에서 발견한 온갖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를 학술잡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 특히 장기 동물 흡입 시험 (Long-Term inhalation Toxicity Test)을 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 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2년 장기동물 흡입 시험을 하는데 필요하므로 막대한 운영비가 들었다.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독성 평가 연구소는 세계에서 몇 곳 밖에 안되었다. DuPont의 독성 평가 연구소(Haskell Laboratory)는 세계에서 유일런 유명한 연구소이며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독성연구 학자들은 독성이 있는 미세먼지 만, 폐에 흡입되었을 때 폐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암이 발생하는 것이며 독성이 없는 미세 먼지는 폐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무해 물질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장기 독성 동물 흡입시험 (Two Year-Inhalation Toxicity Study)에서 암이 독성이 있는 미세먼지를 고 농도로 쥐에 2년간 장기 흡입시켰더니 폐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폐암이 발생한 것을 학술잡지에 발표하였다. 그 발표 논문에서 독성이 없는 미세먼지가 장기 독성 동물 흡입 시험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병리조직학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성이 없는 무해 흡입성 물질이 폐장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으로 흡입된 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폐에 과잉 흡입되면, 폐의 배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입물질이 폐에 축적된다. 결과적으로 폐조직은 축적된 미세 먼지를 제거하는데 장기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폐암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학설(lung overloading theory)을 발표하였다.

세계 독성학회서 내가 제안한 새로운 학설 (lung overloading theory)을 토의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symposium을 가지게 되었고, 유명한 독성연구 학자들이 참석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나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칭찬과 축하 인사를 받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미국 환경청(EPA)에서 내가 세운 학설 (lung overloading theory)을 받아들이고 장기 독성동물 흡입시험(Two Year- Inhalation toxicity Study)을 하기 전에 폐 배출기능 시험(90 Day-Lung Clearance Study)을 하여 폐가 미세먼지를 90일 동안 흡입한 다음 폐 배출기능으로 흡입된 미세먼지가 축적이 안되는 농도를 확인하여 그 농도를 기준으로 장기 독성동물 흡입시험 할 때 흡입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흡입농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새 시험법을 추가하였다.

내가 1964년 Wisconsin 수의과 대학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수의병리학 그리고 부전공으로 인체 병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매년 10월 경, Chicago에서 미국 수의학회가 개최되어 주임 지도 교수와 대학원 학생들이 그 학회에 참석하였다.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하자고 하면 대학원생들은 여러 구실을 세워서 저녁 초대를 피했다. 이유는 대학 동창생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주임 교수와 식당에서 교수와 저녁 식사를 매년 같이 했다. 나는 도야

## 298호 | 2019년 2월 호

plastic은 당시 극비로 진행되었는데, 레이더 (radar)에 탐지가 잘 안되는 장거리 폭격기 (stealth bomber)를 특수 plastic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비행기, 자동차의 강철, aluminum으로 되어 있던 부품들이 plastic로 대체 됨으로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스 소모량이 감소되었고 자동차 생산비도 절약되었다. 우리 주변에 인조섬유와 Plastic으로 된 물건이 부지기수다. 인조섬유와 Plastic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하여 많은 동물 흡입 시험 (Inhalation Toxicity Test)을 시행하여 독성결과를 학술잡지에 발표하였다. 그 발표 논문들이 인정되어 나는 1988년에 미국 환경청 (EPA) 에서 인조 섬유 독성 평가 의원으로 선정되었고 1979년에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석좌 정교수로 임명받았다. 1993년 25년간 근무하였던 DuPont 회사를 은퇴하고 1994년에 한국 정부에서 해외과학자 초빙 계획에 제 1차로 선발되어 대전 유성 대덕 단지에 있는 한국화학 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소에 독성병리전문가로 초빙 되어 2016년까지 일을 했다.

세계적으로 무수한 안정성평가 연구소가 난입하고 빈약한 연구시설과 자력이 없는 독성 연구원 또는 부족한 연구원으로 운영되는 부실한 안정성평가 연구소가 많았다. 그런 연구소에서 제출한 신빙성 없는 독성시험 결과를 받은 미국이나 EU 국가의 식약청이나 환경청은 올바른 안전성평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 경에 미국과 EU 국가의 식약청에서는 안정성평가 연구소의 시설과 연구원의 자격, 인원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준에 합격한 안정성평가 연구소에서 제출한 독성보고서만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화학 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소가 그 기준에 합격하였다. 미국 DuPont 회사에서 장기간 농약개발에 대한 독성 시험의 위탁을 받았다. 그리고 EU 국가의 제약 회사에서 제약개발을 하는데 독성시험을 위탁받아 일을 하고 있으니 외화 획득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약 회사가 크게 발전을 하려면 국내 시장은 연구수가 작아서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장래성이 없고 크게 발전을 못한다. 그러나 잘 같은 나라는 연구수가 많아 국내 시장이 크므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아서 제약 회사는 국제시장에 진출을 안해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여 독성시험에 진출 할만큼 미국하고 EU 식약청에서 인정 받은 한국화학 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에서 독성 평가 시험을 하여야 심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 소규모의 안정성평가 연구에서 독성 평가 시험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은 제한을 받아 국내시장 뿐이다.

내가 1964년 Wisconsin 수의과 대학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수의병리학 그리고 부전공으로 인체 병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매년 10월 경, Chicago에서 미국 수의학회가 개최되어 주임 지도 교수와 대학원 학생들이 그 학회에 참석하였다.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하자고 하면 대학원생들은 여러 구실을 세워서 저녁 초대를 피했다. 이유는 대학 동창생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주임 교수와 식당에서 교수와 저녁 식사를 매년 같이 했다. 나는 도야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지 죽발을 먹고 싶어서 한결같이 pig knuckle를 시켜먹었다. 그 요리는 도야지 죽발을 푸욱 삶아서 뼈를 건들면 살이 떨어지니 마치 삼계탕 같고 맛은 우리나라의 죽발과는 전혀 달랐다. 그래도 도야지 죽발이니 만족스럽게 먹었다.

1990년 경, 나는 독일 Mercedes-Benz 자동차 회사에 출장을 갔다. 출장 목적은 자동차 브레이크(brake pad)를 방탄복 만드는데 사용하는 인조 섬유로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봤을 때, 차 바퀴와 마찰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사람이 흡입 하면 폐에 어떤 독성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야 했다. 회기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고급 식당에서 하게 되어 식사 주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고급 식당에서 요리는는 도야지 죽발(pig knuckle)맛은 어떨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물어보니 pig knuckle은 없고 대신 송아지 죽발(calf knuckle)이 있다는 것이 었다. 그것을 주문하였더니 한참 후 큰 접시에 내 두 손주며 만큼 큰 송아지 죽발이 나왔다. 음식 먹기 전에 큰 size의 죽발을 보니 놀랐다. 맛은 별로 좋지않아 후회를 했다. 나는 구라파에 출장 갈 때 여러 번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가 2~3시간 걸리니 한 식탁에 손님들 받은 다른 손님들 시간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식사대가 미국보다 비싸다. 그리고 구라파에서는 미국처럼 빨리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그런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살기 좋은 나라 같았다.

1986년 한국 정부에서 UN 국제산업발전기구의 경제협력 기금(UNDP)을 받고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 화학 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소에 독성병리 전문가로 하여 기술 고문으로 나를 임명하였다. 그 당시 영국에서 한 독성병리 전문가도 나와 같이 임명을 받아 안정성 평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매일 식사는 외국 전문가를 대접하기 위하여 양식을 같이 먹게 되었으니 고생이 되었다. 하루는 그 외국 전문가가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먹고 싶은 저녁식사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 당시 도야지 삼겹살 구이가 한참 유행하여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았다. 내가 속박하고 있는 유성호otel 근처에 자그마한 초가집의 유리창 창문에 아름답게 쌓인 돼지 죽발이 전시된 것을 봤다. 매일 양식만 먹고 있다가 그 돼지 죽발을 보니 갑자기 먹고 싶었다. 그런데 신사복 차림으로 들어가기에는 창피스러워 그 식당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안을 쳐다보니 손님이 없었다. 넥타이를 풀며 주머니에 깊숙히 넣고 그 식당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니 입구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어서 오십시오” 한마디 인사만 하고 또 계속 열심히 TV를 봤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돼지

내 고향 제주도는 삼다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옛날 제주도를 바람, 돌, 돼지가 많은 삼다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 제주도에는 모든 집에 돼지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집에 관촌상제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목을 매어 도살하고 조리된 것이나 고깃집에서 찜뚫로 하여 돼지탈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 피부를 태운다. 피부는 화상을 입으며 특유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냄새가 제주도 돼지고기의 특유한 맛을 내는데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주로 인분을 먹고 자라기 때 문에 고기에 지방이 적다. 식육용 가축인 소나 돼지는 품종이 갈차면 먹는 사료와 자연 환경에 따라 육질이 다르고 고기 맛이 틀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나는 한쪽 길 가에서 눈에 잘 안보이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 그 여자가 식사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 한참 기다려도 그 여자는 아랑곳 없이 TV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식당 벽에 메뉴가 있는가하고 쳐다보니 벽장에 왕죽발 xx, 미니죽발 xx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원 만 있고 그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왕죽발 xx 율, 미니죽발 xx원의 뜻을 몰랐다. 그러나 값이 차이가 있으니 왕은 크고 미니는 작은 양의 죽발이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하고 부르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미니 죽발하고 밥만 달라고 하였더니 밥을 먹고 싶으면 따로 밥이 있는 요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여 따로 식사 주문을 하였다.

아주머니가 미니죽발을 접시에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나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많다고 하였더니 그 아주머니는 못 마땅한 눈치로 나를 쩌레봤다. 그 죽발을 먹고 보니 뼈다귀가 접시 밑에 깔려 있고 죽발을 위에 놓은 것이라 양이 많지 않아요 하고 하여도 능력이 따라 진급이 안된다. 그렇다고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장사를 한다고 하여도 기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은행에 용자를 받으려고 하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불리한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교포 후손들이 있다. 완벽한 일본말을 하며 외관상 일본인과 동일하여 일본인과 구별할 수 없는 재일교포 후손에게 인종 차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고 외모도 백인과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일본교포 후손과 같은 인종차별은 안받는다.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절실히 느꼈으며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이며 내 나라라고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일본의 큰 기업체인 오즈카 화학 회사(Otsuka Chemical Co)를 돕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일본에 와서 일을 했다. 오늘날 경제가 세계화 함에 따라 국경 없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마치 일본 외인부대에 임대하여 돈받고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가 된 것 같아서 세상은 요지경으로 변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나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오즈카 화학 회사(Otsuka Chemical Co)에 독성병리 전문가로 기술 고문을 하였다. 1996년도 까지는 자동차 브레이크 (brake pad)는 주로 발암성이 있는 석면 (asbestos fiber)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미국에서는 법으로 사용 금지되어 대체 물질로서 인조섬유로 브레이크를 만들었다. 인공섬유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제조해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어떤 한국 사람들이 연구소에 독성병리 전문가로 하여 기술 고문으로 나를 임명하였다. 그 당시 영국에서 한 독성병리 전문가도 나와 같이 임명을 받아 안정성 평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매일 식사는 외국 전문가를 대접하기 위하여 양식을 같이 먹게 되었으니 고생이 되었다. 하루는 그 외국 전문가가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먹고 싶은 저녁식사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 당시 도야지 삼겹살 구이가 한참 유행하여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았다. 내가 속박하고 있는 유성호otel 근처에 자그마한 초가집의 유리창 창문에 아름답게 쌓인 돼지 죽발이 전시된 것을 봤다. 매일 양식만 먹고 있다가 그 돼지 죽발을 보니 갑자기 먹고 싶었다. 그런데 신사복 차림으로 들어가기에는 창피스러워 그 식당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안을 쳐다보니 손님이 없었다. 넥타이를 풀며 주머니에 깊숙히 넣고 그 식당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니 입구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어서 오십시오” 한마디 인사만 하고 또 계속 열심히 TV를 봤다.

내 고향 제주도는 삼다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옛날 제주도를 바람, 돌, 돼지가 많은 삼다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 제주도에는 모든 집에 돼지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집에 관촌상제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목을 매어 도살하고 조리된 것이나 고깃집에서 찜뚫로 하여 돼지탈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 피부를 태운다. 피부는 화상을 입으며 특유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냄새가 제주도 돼지고기의 특유한 맛을 내는데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주로 인분을 먹고 자라기 때 문에 고기에 지방이 적다. 식육용 가축인 소나 돼지는 품종이 갈차면 먹는 사료와 자연 환경에 따라 육질이 다르고 고기 맛이 틀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나는 625사변이 난 1950년 4월에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집에서는 928서울이 탈환이 되자 내가 있던 하숙집에 연락을 하여 보니 생사를 모른다고 회답을 받고 내가 인민군에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집에서는 추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 12월에 구사일생으로 내가 제주도 고향에 돌아오니가 동네 사람들이 주인의 허락없이 돼지 네마리를 잡고 일주일간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기계 나사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815 해방 후, 아버지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화물선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와 운영하였으므로, 우리 마을에서는 일등 부자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죽었다

가의 작은 골목에는 다수의 한국식당이 있었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맵고 냄새나는 자극성이 강한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곳에서 인기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요리는 돼지 삼겹살이나 돼지 죽발이 아니라 돼지 곱창 구이(호르마키)였다. 내가 일본에 살고 있을 때 조선인은 냄새난다고 무시하고 인종 차별을 하던 일본 사람들이, 냄새나는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였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후손들은 몇대가 되든지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인종 차별로 제 능력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그들은 큰 기업에 취직하기 힘들고 취직이 된다고 하여도 능력이 따라 진급이 안된다. 그렇다고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장사를 한다고 하여도 기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은행에 용자를 받으려고 하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불리한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교포 후손들이 있다. 완벽한 일본말을 하며 외관상 일본인과 동일하여 일본인과 구별할 수 없는 재일교포 후손에게 인종 차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고 외모도 백인과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일본교포 후손과 같은 인종차별은 안받는다.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절실히 느꼈으며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이며 내 나라라고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일본의 큰 기업체인 오즈카 화학 회사(Otsuka Chemical Co)를 돕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일본에 와서 일을 했다. 오늘날 경제가 세계화 함에 따라 국경 없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마치 일본 외인부대에 임대하여 돈받고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가 된 것 같아서 세상은 요지경으로 변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내 고향 제주도는 삼다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옛날 제주도를 바람, 돌, 돼지가 많은 삼다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 제주도에는 모든 집에 돼지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집에 관촌상제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목을 매어 도살하고 조리된 것이나 고깃집에서 찜뚫로 하여 돼지탈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 피부를 태운다. 피부는 화상을 입으며 특유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냄새가 제주도 돼지고기의 특유한 맛을 내는데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주로 인분을 먹고 자라기 때 문에 고기에 지방이 적다. 식육용 가축인 소나 돼지는 품종이 갈차면 먹는 사료와 자연 환경에 따라 육질이 다르고 고기 맛이 틀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나는 625사변이 난 1950년 4월에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집에서는 928서울이 탈환이 되자 내가 있던 하숙집에 연락을 하여 보니 생사를 모른다고 회답을 받고 내가 인민군에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집에서는 추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 12월에 구사일생으로 내가 제주도 고향에 돌아오니가 동네 사람들이 주인의 허락없이 돼지 네마리를 잡고 일주일간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기계 나사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815 해방 후, 아버지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화물선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와 운영하였으므로, 우리 마을에서는 일등 부자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죽었다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of names and membership status. Includes categories like 남가주, 북가주, SAN FRANCISCO, and various individual names with their respective membership years and amounts.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of names and membership status. Includes categories like WASHINGTON, MID-TEXAS, and various individual names with their respective membership years and amount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Lists contribution amounts and options for scholarship, charity, and other special funds.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주소, Cell Phone.

###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b>Pancom 광고기획</b>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b>Kyung Moo Kim CPA &amp; Accounting Coporation</b>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b>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공인회계사)</b> 강산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b>GSK LLP</b>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Jun Chang CPA &amp; Associates, AC</b>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b>Kim &amp; Hwang C.P.A.s</b>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b>KOOG WON KWUN CPA &amp; ASSO, INC</b>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해태 USA/Haitai Inc.</b>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b>ACCU Construction, Inc.</b> 엄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b>VIP 성형외과</b>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b>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b>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CareMax Pharmacy</b>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b>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Seoul Medical Group ★</b>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b>나성약국 ★</b>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치과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명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b>신혜원 변호사</b>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b>Kenneth T.HAAN &amp; Associates, APLC</b>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b>Team Spirit Realty</b>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b>Turbo Air, Inc. ★</b>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b> 박양종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AXA Advisor</b> <b>Paramount Planning Group</b>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axa-advisors.com
<b>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b>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b>SeAH Steel America Inc.</b>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b>Wesley &amp; Associates, CPA</b>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b>Timothy Haahs &amp; Assoc.</b>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음식점
<b>이즈미 일식당</b>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b>Changsoo Kim, CPA P.C.</b>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b>KL CPA &amp; Associates LLC</b>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b>신응남 변호사</b>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b>American Int'l Line, Inc.</b>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b>백승원 위장내과</b>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이차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차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b>김치갑 카이로프랙</b>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b>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b>윤세웅 비뇨기과</b>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b>이혁엽 알러지 전문의</b>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b>박범열 소아과</b>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박종호 소아과</b>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b>이수호 한의원</b>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b>우래옥</b>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b>이준영 치과</b>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b>역대회장</b>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b>제14대 회장: 윤상래 (수)</b>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b>집행부</b>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희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b>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b>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희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b>IT 위원회</b>
<b>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b>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b>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b>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b>SNA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b>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b>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b>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b>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b> 위원: 각 지부 회장
<b>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b>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b>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b>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u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http://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 詩: 골프 인생

##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wing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때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샹크 뽑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꽃인다네.

##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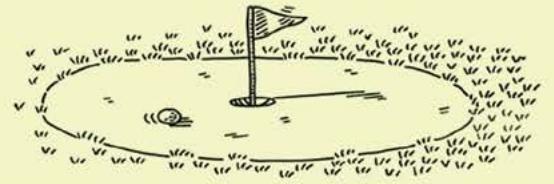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뚜~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eter.com

###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